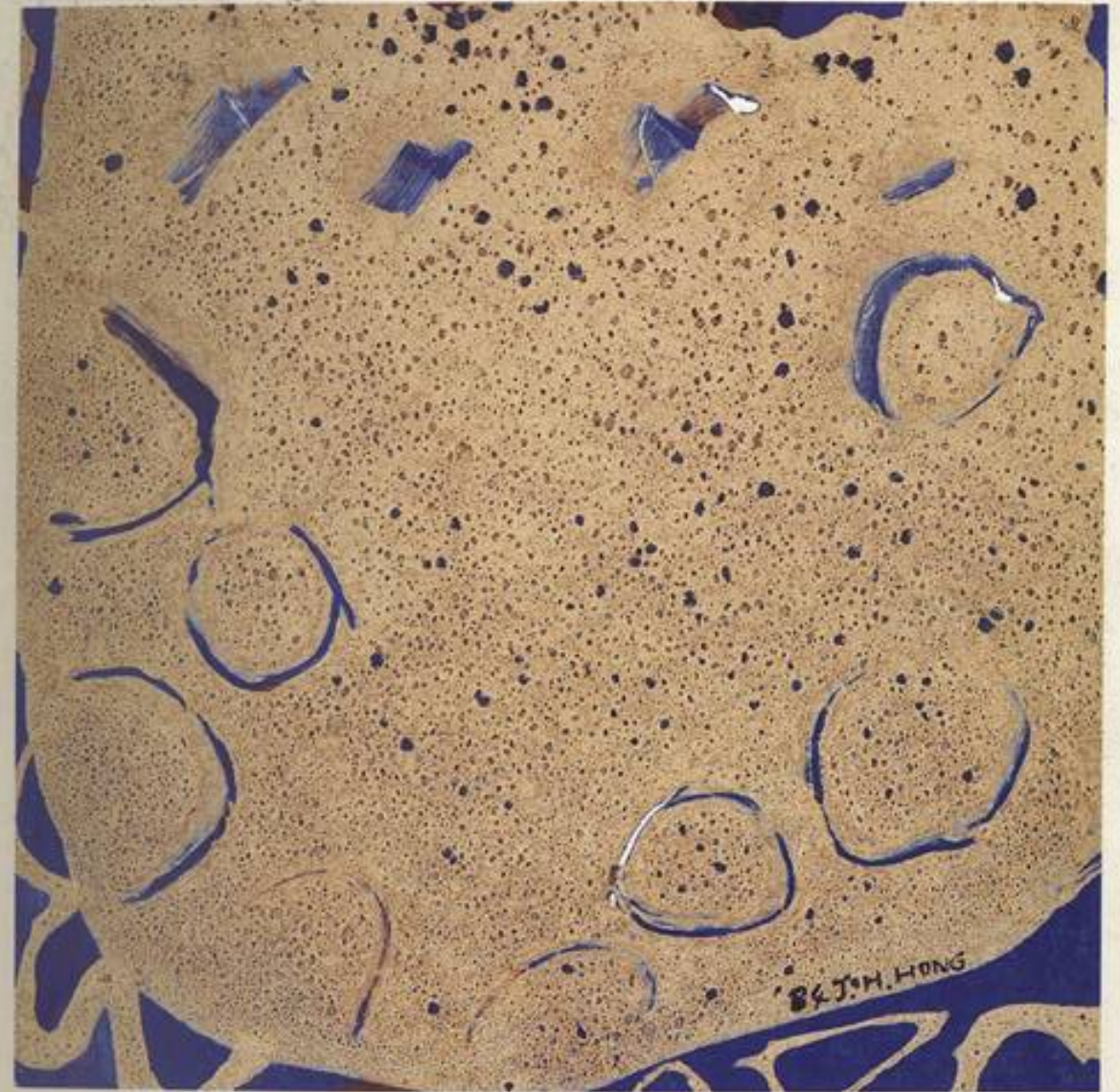


여성



특·집

- ①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창립총회
- ② 제 4차 세계여성회의의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94.9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맛있는 빵·신라명과

신라명과는 1979년 Hotel Shilla의 제과 사업부로 시작하여 최고급 제품 생산을 기업 모토로 운영해온 제과·제빵 전문회사입니다. 1984년 보다 전문적인 제과·제빵 업체로 발돋움 하기 위해 별도의 회사로 분리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최고의 제품"만을 만든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90년도에 들어서는 제조기술의 국제화를 위해 프랑스 최고급 식료품 회사인 HED IARD (에디알)사와 기술을 제휴하여 프랑스 본고장의 빵맛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라명과 제품과 만나보세요. 한차원 다른 빵의 세계를 경험하실수 있습니다.

신라명과 Family Brand





1톤의 강한철로
1000인의 풍요로운
삶을 만든다!

고객 만족과
국가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기업-포항제철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월간 여성

월간여성 9월호 통권322호

.....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④ **女聲**
지방자치제 여성일정비율할당제 도입을 주장하며/주준희
- 특집①**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창립총회
②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 ⑥ **특집①** 개회사
여성의 적절한 대표성 확보는 정의사회로 가는 길
- ⑧ **특집①** 축사
실질적인 사회개혁을 위해 여성20% 할당제를 꼭 이룩해야/이우정
여아가 없이 한 목표를 향해 땀 흘린 우리 여성들!/주양자
- ⑩ **특집①**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발족 경과보고
- ⑬ **특집①**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발족 취지문
할당제는 여성의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 ⑮ **특집①** 우리의 결의
- ⑯ **특집①**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사업계획
- ⑰ **특집①**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규약
- ⑱ **특집②**
세계여성회의의 개요 및 정부간 준비활동/황인자
NGO 포럼 개요 및 참가요령/정순영
NGO 포럼 참가를 위한 여성단체 준비활동/신낙균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안)의 의의와 내용/노미혜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전략/김정숙·박보희·이연숙
- ⑳ **여성학** 지상강좌
여성해방론과 그 실천에 관하여(Ⅲ)/추예주
- ㉒ **매스컴에 비친 여성**
남량특집극 'M'이 갖는 사회적 의의
- ㉔ **해외여성통신**
세계은행, 차관제공계획시 그러나 여성문제 반영할 것을 제의/이영남
- ㉖ **소비자 정보**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내용/경제기획원
- ㉘ **여성계동향 / 황금희**
- ㉚ **협의회 소식**
- ㉜ **우리들의 광장**

지방자치제 여성일정비율할당제 도입을 주장하며

주준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정치학)

민주화는 이제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정치발전의 대세가 되었다.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에 한국이 아태지역의 지도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민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1820년대, 1920년대에 뒤이어 1970년대에 시작된 제3의 민주화물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민주화의 핵심적인 지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민주화된 선진국가일수록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여성의 동반자적 참여가 증진되고 있다.

이제 선진민주국가에서는 대차영국수상, 메리 로빈슨 아일랜드 대통령, 무른트하트 노르웨이수상등 여성행정수반의 성공적인 정치가 상식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민주국가에서 각료의 20, 30%가 여성으로서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등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핀란드와 같은 나라는 내각과 국회 및 지방의회의 40%가 여성이다. 전세계적으로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평균 10% 이상이다. 진정한 민주화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 방면의 사회발전이 극히 지체되어 있다. 국회의원 1%, 지방의회의원의 1%가 여성이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극히 후진국에서만 발견되는 부끄러운 수치이다.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는 국가의 최고우선 정책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없는 한국의 민주화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정치권력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자유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 능력있는 여성을 발굴하고 훈련하고 지원하여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에게 최소한 20%의 의석을 할당하는 여성일정비율할당제의 적극적인 도입이 없이는 한국민주주의의 기형적인 현상을 시정하는데는 불필요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제는 정치엘리트의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정치신세대인 여성에게 과감히 정치가 개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진정 민주적인 정치, 깨끗한 정치, 생명의 정치, 보살핌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여성의 영역이다. 그것은 지방살림이며, 특히 교육, 복지, 환경등 여성들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다. 그러나 한국정치문화는 여성의 지방자치진출을 막고 있고, 결과적으로 여성능력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내년의 지방의회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과 정치엘리트는 보다 깨이고 열린 의식으로 여성후보를 과감히 발굴 육성하며 20%의 정당공천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화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여성단체는 모든 색깔을 초월하여 힘을 집결함으로써 여성후보를 발굴, 출마를 권유하고 자원봉사등으로 지원하며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감시함으로써 새로운 여성민주정치문화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특집

- ①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창립총회
- ②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 특집 / ①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창립총회

〈개회사〉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창립총회가 지난 8월31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56개 여성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에 본지에서는 그 모임 내용을 특집으로 소개한다.

여성의 적절한 대표성 확보는 정의사회로 가는 길

이연숙 (본회 회장)

여성인력이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여러나라에서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할당제인 것입니다. 할당제는 법률상의 남녀평등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활영역에 상존하는 사실상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과반수이면서도 무권력의 다수일뿐인 여성이 불평등, 불이익, 부자유를 극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정의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을 타파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모인 여성단체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여성문제에 애정을 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때문에 받는 차별을 없애고 사람답게 사는 복지사회건설에 힘써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평등권 실현을 위한 강도높은 방법인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라는 모임을 출범시키면서 기쁘기 보다는 이 자리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장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누적된 성차별의 결과로써 자연스런 방법으로 자생적인 성장에 의한 남녀평등을 이룩하기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그간에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므로 이제 여성이 각 분야에 어느정도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율로 참여할 때까지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시행시키기 위해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30여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경제적으로는 중진국 수준을 넘어섰지만 여성의 정치참여는 178개국중 113위라는 세계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진화를 가능하는 좋은 잣대가 그 나라의 여성의 지위라고 합니다.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선진국 여성들이 고위급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외교무대와 무역협상 테이블에 앉고, 대통령을 대변하는 등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국 여성들의 지위도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과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여성평등촉진 조치 중의 하나인 할당제에 기인한 바가 큼니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세계 어느나라 여성들 못지않게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화, 국제화를 이루려면 여성인력을 이등국민, 주변인력으로 인식하고 사장시키는 현실을 타파하고 여성인력이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여러나라에서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할당제인 것입니다. 할당제는 법률상의 남녀평등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활영역에 상존하는 사실상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과반수이면서도 무권력의 다수일뿐인 여성이 불평등, 불이익, 부자유를 극복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정의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책결정과 집행부서뿐만 아니라 고용 및 직업, 직업훈련분야등 사회 각 분야에 할당제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사회 각 구성원의 과반수인 여성이 각 분야에 50%씩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고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을 위해 1995년까지 정부, 정당, 노조, 직업단체의 지도적 지위에 여성이 적어도 30%는 참여해야 한다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권고를 참고하여 1차적으로는 내년 지자체 선거에 여성참여 20%를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는 세계적 수준에 비하면 미흡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 최소한의 목표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먼저 여성의 힘을 모으고 많은 남성동조자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할당제 도입이 여성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의 적절한 대표성 확보를 통한 정치발전, 사회발전으로 확대되어 민주사회를 건설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출발이 내년에 좋은 결실을 맺고 더욱 더 발전하여 여성정책참여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은 여기 모이신 여성단체 지도자 여러분과 정당관계자 그리고 언론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이모임의 산파역할을 해주셨던 여성개발원측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손잡고 여성평등 그 날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딜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 8. 31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창립총회에서

〈축사〉 아래 내용은 행사 당일 이우정의원과 주양자의원의 축사를 녹음본이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회개혁을 위해 여성 20% 할당제를 꼭 이룩해야

이우정 (국회 여성특위 위원장, 민주당 국회의원)

입법부·행정부 고위직에 여성이 많이 진출하기 위해선 특별조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전국구에는 20% 할당이 결정되었지만 지방의 기초·광역의회에는 이런 비례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 기쁩니다.

저는 억울한 세상을 산 여성중의 하나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담박을 넘어가면 안되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여기던 시대의 교육을 그대로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민주화 운동, 인권운동에 뛰어들면서 민주화·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속에서도 남녀차별이 있음을 피부로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화운동, 진정한 인권운동은 농민자 즉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해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판단으로 여성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회의 가치관·제도가 달라져야지 한 두 여성이 장관이 되고 고위직에 오른다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후 국회로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 법사위원이 100% 남자였습니다. 여성이 억울한 것을 모르더군요.

이 사회를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개혁하려면 권력의 핵심인 입법부·행정부 고위직에 여성이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간의 사회생활을 통해 절감했습니다.

입법부·행정부 고위직에 여성이 많이 진출하기 위해선 특별조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전국구에는 20

% 할당이 결정되었지만 지방의 기초·광역의회에는 이런 비례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에 경주 보궐선거에서 보다시피, 그 여성후보가 꼭 될 줄 알았는데 낙선을 해서 여성이 선거에서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남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여성은 모두 합심해야 합니다. 이번 여성연대가 20% 할당을 목표로 한자리에 뭉쳐 공동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벌써 반은 이룬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단체들이 뭉친 힘을 갖고 어떻게든 20% 할당제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 국회의원 5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축사〉

여야가 없이 한 목표를 향해 뭉친 우리 여성들!

주양자 (국회 여성특위 간사, 민자당 국회의원)

여성에게는 여야가 없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저희 여성의원들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성이 여성을 서로 도와서 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성계의 단결과 화합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 33년을 하면서 참 외롭게 헤쳐나와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할당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져서, 여성들도 당당히 싸워서 생취 가능하다고 여긴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이 시점에 와서보니까 할당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는 여성들이 실력을 갖추고 아무리 싸워나가도 할당제가 없이는 여성의 지위발전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할당제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대에 할당제를 통해 길을 터놓으면 후대에는 할당제 없이도 당당히 남녀가 실력을 겨뤄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 여성단체들이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주시면 특위 위원장님인 이우정의원님은 민주당에서, 저는 또 민자당에서 큰 목소리를 내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여야없이 한 목표를 향해 뭉칠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여야가 없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저희 여성의원들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우정의원님의 "나는 민주당이지만 경주선거에서는 민

자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가 여성후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희 여성 국회의원들은 하나로 뭉쳐 여성운동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국회에서 힘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에서는 당선들이 20% 할당을 주장하는데 인재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인재들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그 인재를 가지고 각 당에 요청할 것입니다.

여성인 여성을 서로 도와서 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성계의 단결과 화합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발족 경과보고

본 여성연대는 여협의 이연숙회장과 여연의 이미경 상임대표를 공동대표로 하면서, 95년도 지방의회 선거를 목표로 하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설정하고, 관련있는 단체를 본연대에 더 포함시켜 나가기로 결정했다.

1. 여성단체의 할당제 요구활동

1988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도 주인이 되는 정치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대안 건의서’를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출

“공무원 채용시 여성에게 최소한 10~15% 할당제 실시할 것과 국회 및 지방자치체 운영에서 최소한 10% 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

1989년 정무장관 2실 주최 광주여성지도자 정책토론회

참석자들 20% 할당제 촉구 성명서 채택

1989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할당제 촉구하는 20,733명의 서명과 함께 임명이나 공천에서 10% 할당을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당에 제출

1990년 대한 YWCA연합회 주최 ‘여성참여와 바람직한 지방의회 선거법’ 공청회에서 참가자들

“지방의회 여성의원 20%의 참여를 보장하는” 건의문 채택

1991년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건의서에서 정당 공천 할당제 요구

1991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독일 방식의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의석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요구하는 ‘지방의회 선거법 개정에 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1992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활동에서 임명직, 선출직을 막론하고 각급 수준에서 2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행정조직에서 직급별로 최소 20% 이상 할당하며, 교육공무원은 각 행정조직 및 각종 위원회에 최소 20% 할당을 주장

1992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당선가능한 지역구에 여성을 10% 이상 공천할 것과 전국구의 당선가능한 순번에 여성을 20% 이상 할당하며, 정당 간부직의 20%, 대통령 임명직의 10~20%를 여성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

1992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대회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부, 공공기업체, 정당 고위직의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

1992년 한국여성정치연맹

한시적인 정당공천 할당제(지역구 5%, 전국구 20%), 선거구 당선 할당제를 관계 당국에 요청

1993년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대한간호정우회, 성폭력상담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한국여

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통일여성협의회등이 정치관계법 개정에서 “모든 선출직에 어느 한 성이 8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정당공천 할당제 실시를 명시하도록 요구

1994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전문직여성클럽은 민자당,

민주당에게 14대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각 정당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의 공약 이행여부를 질의 그리고 20% 여성할당제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질의

1994년 한국여성단체연합

1994년도 중점사업으로 “지방자치와 여성정치참여”로 정하고 1995년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여성의석 20%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이를 위해 각 정당은 여성에게 공천할당과 특별훈련,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

1994년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여성직업 교육 현황 및 확대방안’ 세미나에서 직업훈련에서 20%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주장

1994년 대한 YWCA연합회

전국대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할당제 실시를 주장



2. 할당제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

1994년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일정보을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연구자 김선옥, 김명숙) 발표
1994년 위 연구발표 세미나 이후 여성계의 요청에 의해 한국여성개발원이 할당제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을 주선

그동안 할당제를 주장해온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YWCA연합회, 서울YWCA,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개발연구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에 초청장을 보냄

회의 참석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YWCA연합회, 서울YWCA,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개발연구소

회의결정 사항:

- 가. 본 회의에서 할당제의 우선적 목표를 '95년 지방자치제 선거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로 함
- 나. 이 회의를 몇 번 더 발전시켜 가면서 자체 자생력이 생겼을 때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단체간 조직체를 만들기로 함
- 다. 여성할당제의 여성득표율은 궁극적으로는 50% 이어야 하나 우선 첫단계로 20% 정도를 긍정적으로 봄

1994년 할당제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 2차회의로써 1차회의시의 토론사항을 더욱 구체화시키기로 함

회의 참석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YWCA연합회, 서울YWCA,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개발연구소

회의결정사항:

- 가. 본회의의 대표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연숙회장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미경 상임대표를 공동대표로 함
- 나. 본 회의를 '95년도 지방의회 선거를 목표로 하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설정 함
- 다. 본 회의에 관련있는 단체를 더 포함하기로 함
- 라. 본 회의의 명칭은 "(가칭)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단체연대"로 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마. 차기 준비모임은 8월 31일(수) 오전 10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최하기로 함

1994년 8월 31일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창립총회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발족 취지문>

할당제는 여성의 대표성 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

우리사회는 지금 오랫동안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자치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세계도 냉전시대를 벗어나서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또한 군사적 위협보다 인류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 생태계의 위기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와 냉전시대가 남성적인 물리적 힘의 집중을 의미하였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는 부드러움과 창조적 다양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자연과의 공존을 미래지향적인 사회발전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남성중심의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발휘되지 못하고 무시되어 왔던 여성들의 경험과 지혜, 창조성과 감수성이 사회발전에서 적극적으로 발휘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동안 여성들은 우리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공장과 농촌과 가정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회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주의의 사회에서 대부분 지시를 받는 위치에 놓여 있었고, 의사결정구조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국회의 98.8%, 지방의회의 99.1%, 국무회의의 91.7%, 각종 위원회의 94%, 고위직 공무원의 98%가 남성들에 의해서 독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의사결정구조에서의 참여 배제는 기업, 노동조합, 교육부문, 언론부문 등 사회의 다른 분야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남녀간의 대표성의 차이는 한국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웅변적으로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의사결정구조에서의 여성의 과소대표성은 사회발전 과정에서 여성은 단지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존재일뿐, 여성이 능동적, 창의적으로 사회발전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경험과 능력이 단지 동원의 대상에 머무는 한, 우리 사회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에서 정체하거나 후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평등한 의사결정적 참여는 단순히 남녀평등의 차원을 넘어서 자유와 평등, 정의, 생태계와의 공존 등 미래의 우리 사회의 발전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성이 배제된 미래사회의 발전은 온전한 것일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의사결정적 참여의 대표성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의식을 갖고 정치, 행정, 고용, 교육 등 각 분야에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 중의 하나가 바로 할당제입니다. 할당제는 이미 북구를 비롯하여 정치, 의사결정적 참여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1970년대부터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1995년 실시되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이 20%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각 정당과 국회, 그리고 정부에 촉구하는 일부터

●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는 여성이 주축이 되어 일할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는 여성의 의사결정직에의 대표성 확보에 찬동하고 지지를 보내는 남성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 아니라, 여성도 함께 참여하는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유와 정의와 평등사회, 통일사회를 이루도록 합시다.

시작할 것입니다.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진출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지방자치와 같이 가장 기초적인 영역, 생활정치라는 새로운 실험이 용이한 분야에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9월에는 유엔이 주최하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참여하여, 자기나라의 여성지위의 현황을 토론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수준은 178개국 중 113위입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이 20% 정도 당선되어 세계 113위의 오명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북한여성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 대표성을 남한여성의 수준으로 하향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당제는 일정기간 동안의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성들이 의사결정직을 독점하여 왔기 때문에, 여성들은 능력을 인정받아 보기도 전에 대표성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구조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성격의 대표성이 20%~30%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구색을 맞추는 역할을 할 뿐 힘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20%의 참여비율을 주장합니다. 잠정기간이 지나면 여성들의 힘으로 50%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는 여성이 주축이 되어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의 의사결정직에의 대표성 확보에 찬동하고 지지를 보내는 남성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 아니라, 여성도 함께 참여하는 바람직한 미래사회의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유와 정의와 평등사회, 통일사회를 이루도록 합시다.

우리의 결의

- 나이로비 여성발전 전략에 따라 2000년대까지 각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가 30%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표하에 우선 1995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20% 여성의석 확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정당에서는 의원후보자공천과 당고위직에 20% 여성할당제를, 국회에게는 각 상임위원회와 당직에 20% 여성할당제를, 정부에게는 각 지방자치부단체장 임명과 정책고위직의 20%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각 정당과 정부가 여성지도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훈련하도록 요구한다.

- 정치부문에서의 할당제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 할당제 도입을 촉구하고, 약속한 일정비율이 달성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 각 분야에서 능력있는 여성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해당조직과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여성단체들은 우리 사회가 정의, 평등 정신에 기초하여 각 집단의 대표성 확보가 정치적 가치로 확립되고 여성문제를 공공정책의 우선 과제로 인식하도록 각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연대활동을 펴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4. 8. 31

할당제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창립총회 참가자 일동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사업계획

(1994. 8. 31~1995. 8. 31)

1. 전략회의

취 지: 여성의 정치진출을 보다 현실화시켜 내기 위한 전략과 방안모색회의로 정당의 여성국과 학자, 단체장으로 구성한다.

내 용: 1) 정당에 내놓을 구체적인 로비방안
2) 대유권자 홍보방안
3) 여성단체나 정당여성국의 과제
4) 기타

2. 대유권자홍보사업

취 지: 할당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여론화의 환기

내 용: 1) 할당제 도입을 위한 범여성대회
2) 할당제 홍보물 제작
3) 기타

3. 정당압력활동

취 지: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정당으로 하여금 지방의회 선거에서 여성의 공천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특히 2인 이상 선거구 등을 중심으로 당선가능한 지역에 여성이 공천되도록 하는 등 대정당, 국회의원 차원의 압력활동을 전개한다.

방 식: 1) 정당대표 면담/여성국 차원의 할당제에 대한 정당 내의 역할 정책토론회 기획
2) 여성연대 전략회의를 통해 다양한 방식을 개발한다.
3) 기타

4. 조직·교육사업

취 지: 전국단위에서 여성의 정치참여의 중요성과 할당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다 제고시키기 위해 지역별 여성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이 네트워크단위에서 본 사안에 대한 정책여론사업, 캠페인사업 및 여성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방 식: 지역별 할당제 여성연대 네트워크를 권장한다.

5. 모금사업

6. 기타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규약

제1조(명칭) 본 여성연대는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본 연대)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대는 여성에게 불평등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을 극복하고 사실상의 평등 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대는 목적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부, 정당, 기업 등 할당제를 실시해야 하는 실시주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2. 할당제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를 실시한다.

제4조(참가자격) 본 연대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제5조(기구와 소집)

대표자회의: 참가단체가 파견하는 대표 1인씩으로 구성하며 임원선출 및 사업계획, 규약, 재정 등에 관한 사안을 결의한다. 대표자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대표자회의는 필요에 따라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운영위원회: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사업구상 및 집행 등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결의, 집행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정기 운영위원회는 2개월마다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임원) 공동대표 2인

서 기 1인

회 계 1인

감 사 2인

제7조(재정) 재정은 참가단체에서 공동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사무) 활동에 수반되는 실무는 참여단체에서 공동참여하여 집행하며 연락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실로 한다.

제9조(부칙) 1. 본 연대활동은 일단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그 이후 존속 여부는 내년 선거 이후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2. 기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특집 / 2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본지에서는 정부장관 제2실에서 주최한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94. 8. 17. 한국여성개발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세계여성회의 개요 및 정부간 준비활동

황인자 (정부장관 제2실 담당관)

제4차 세계여성회의가 95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다. 유엔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 2000년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행동강령'안이 채택될 것이다. 이에 관한 유엔과 지역별, 개최국별, 또한 우리나라의 준비활동을 살펴본다.

1. 제4차 세계 여성회의의 개요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Action fo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 기 간: '95. 9. 4~9. 15
- 장 소: 중국 북경 국제컨벤션센터
- 목 적
 - 1985년 이후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 이행 상황 검토 평가
 - 2000년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행동강령 채택
 - 유엔 중기계획(1996~2001)차원의 나이로비전략 이행 우선순위 결정
- 참석범위
 - 각국 정부(184개 유엔 회원국 등 모든 국가에 개방)
 - 유엔기구 및 정부간 기구
 - 비정부기구(NGO)
 - 전문가(개인·단체등)
- 주 관: 유엔
 - 준비기구: 유엔 여성지위위원회(45개 위원국, 매년 정례회의)

- 사 무 국: 유엔 사무국내 여성지위향상국(뉴욕 유엔본부 소재)
- 사무총장: 거투르드 몽켈라(탄자니아 출신)
- 회의문서
 - 행동강령(안)
 -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 이행에 관한 유엔 보고서
 - 「발전과 여성의 역할」 '94 세계조사보고서
 - 「세계의 여성: 1970~1990」 최신보고서
 - 세계여성회의의 준비를 위한 지역회의의 결과
 -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편람
 - 각국의 보고서

※ NGO 포럼 개요

- (제4차 세계여성회의와 병행개최)
- 기 간: '95. 8. 30~9. 8
- 장 소: 중국 북경 근로자스포츠센터
- 주 관: NGO 포럼 기획위원회 및 촉진위원회
- 참석범위: 관심있는 모든 남녀 개인 및 단체

2. 세계여성회의의 연혁

구분	연도	장 소	내 용	비 고
제1차	1975	멕시코시티	- 유엔제정 「세계여성의 해」('75) 기념 - 멕시코선언 및 세계행동계획(219개항) 선택 · 주제: 평등·발전·평화 - 「유엔여성 10년」('76~'85) 선포 유도 - 참가규모: 2천명(IWY Tribune 6천명)	* 정부간 회의인 세계여성회의와 별도로 비정부 기구회의 개최
제2차	1980	코펜하겐	- 유엔여성 10년 중간평가 - 유엔여성 10년 후반기 사업계획(287개항) 채택 · 소주제 추가: 교육·고용·보건 - 참가규모: 2천명(NGO포럼 8천명)	
제3차	1985	나이로비	- 유엔여성 10년 사업 종합평가 -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전략(372개항) 채택 - 참가규모: 153개국 2천명(NGO포럼 15천명)	
제4차 (예정)	1995	북 경	- 나이로비 전략 이행 평가 - 행동강령 채택 - 유엔창설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 - 참가규모: 2~3만명 예상(NGO포럼, 현지인 포함)	

에 개방

- 목 적
 - 여성의 역할과 기여 평가
 - 전세계 여성의 보편적 문제와 해결방안 토의 및 각종 정보자료 교환

3. 정부간 준비활동

- 유엔차원 (UN System)
 - '90년 제45차 유엔총회에서 '95세계여성회의 개최 승인 및 여성지위위원회를 준비기구로 지정
 - '93년 2월, 거투르드 몽켈라 세계여성회의 사무총장 취임
 - '93년 10월, 비엔나에서 뉴욕으로 사무국 이전

- 세계여성회의의 신탁기금 설치
 - 각국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등으로부터 재정조달 목적
- 유엔환경개발회의, 세계인권회의등 유엔주관 세계회의의 여성관련사항 파악
- 세계여성회의의 관련 각종 홍보활동
- 유엔기구간 세계여성회의의 준비조정회의 개최(3개월에 1회정도)
- 유엔 관련기구별 자체 준비사업 전개
- 지역차원 (Regional Commission)
 - 지역별로 세계여성회의의 준비회의 개최
 - 아·태지역(ESCAP): '94. 6월, 자카르타(아·태지역 행동강령 채택)
 - 중남미지역(ECLAC): '94. 9월, 아르헨티나

나

- 유럽지역(ECE): '94. 10월, 오스트리아
- 서아시아지역(ESCWA): '94. 11월, 요르단
- 아프리카지역(ECA): '94. 11월, 세네갈

○ 개최국 (중국)

- 국가차원 세계여성회의의 조직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장: 팡패운 국가계획생육위원회 주임
- 사무총장: Mr. Xu Zhijian
-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 개최 주무기구는 중화전국부녀연합회 (당의 군중조직단체)
- 세계여성회의의 참가자를 위한 안내자료 발간 예정('94 하반기)

4. 우리나라의 준비활동(정무제2장관실 주관)

○ 세계여성회의의 준비기구 설치

- 국무총리 소속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위원회로 지정
- 정무장관(제2)실을 주무기구로 지정

○ 나이로비전략 이행상황 국가보고서 작성

- '94. 5월 유엔에 제출
- 국가보고서 및 나이로비전략을 정책자료집으로 발간 추진

○ 세계여성회의의 준비회의에 참석

- 여성지위위원회 연례회의(특히 '94년부터 위원국으로 참가)
- 여성지위위원회 실무회의('94. 1월, 뉴욕)
- ESCAP 연차총회('94. 4월, 뉴델리)
- 아·태지역 여성개발 각료회의('94. 6월, 자카르타)

○ 정무제2장관 유엔본부 방문('94. 3월, 뉴욕)

- 유엔 차원의 세계여성회의의 준비활동 평가 및 공동 관심사항 의견교환
- 유엔사무총장 면담
- 세계여성회의의 사무총장 면담
- UNIFEM, UNICEF, UNFPA등 유엔 주요 기구의 장 면담

○ '95 세계여성회의의 관련 자료집 발간

- ①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안)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실무회의 토의내용
- ②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제38차 회의자료 모음
- ③ 아시아·태평양 여성개발 자카르타 선언 및 행동강령

○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 1차: '94. 8. 17 / 2차: 금년말 개최예정

○ 세계여성회의의 신탁기금에 재정적 기여 예정

-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중

○ 세계여성회의의 준비사무국에 직원 파견 예정

- 정무장관(제2)실 직원 1명을 자문관으로 파견
- 자문기간: '94. 8. 22~11. 19(3개월)
- 자문업무: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안) 작성, 각국의 나이로비전략 이행 보고서 검토 등

○ 유엔주관 다른 세계회의의 준비 및 후속작업에 참여

- '92 리우 환경회의, '93 비엔나 인권회의
- '94 국제인구개발회의, '95 사회개발정상회의

5.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안) 추진배경

○ '91년 제35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행동강령 기본지침 마련

-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3대 목표인 평등·발전·평화에 초점을 맞추되, 대다수 여성의 발전에 근본적으로 장애가 되는 최소의 요인을 가려내어 진단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간결하고도 계량적으로 기술

○ '93년 제37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 구조(시안) 제시

- 행동강령은 2000년을 목표년도로 하여 내용이 간결하고(concise),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accessible) 구조가 짜여져야 함을 강조

○ '94. 1월 여성지위위원회 실무회의에서 행동강령 구조 토의

- 여성만을 별도 분리하기 보다는 남녀의 균형적 역할과 관계정립에 주안점을 두어 세계보편적인 불평등한 현상(특히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남녀의 공동협력과 화합을 강조

○ '94년 3월 제38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행동강령(초안) 상정, 토의

'95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안)

I. 임무의 기술 (Statement of mission)

○ 행동강령은 평등·발전·평화를 위하여 남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여성의 온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의 잔재를 제거하고
- 전 생애주기를 통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며

-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 여성을 주류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하여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 NGO와 민간부문은 주요관심분야에 있어서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을 이행하는 전략적 행동을 취할 것이 요청됨.

II. 세계적 구도 (Global framework)

- '85년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 채택 이래 전 세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재편과정을 겪어 왔음

- 이러한 재편과정은 여성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바, 행동강령의 배경을 이룸.

III. 주요 관심분야

- ① 여성에 대한 빈곤의 지속적 부담 가중
- ② 교육·보건 등에서의 불평등
- ③ 여성에 대한 폭력
- ④ 갈등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 ⑤ 경제 구조와 정책 및 생산과정에서의 참여 불평등
- ⑥ 의사결정 및 권력배분 과정에서의 참여 불평등
- ⑦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기구의 미흡
- ⑧ 국내외적으로 인정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 ⑨ 여성의 적극적 사회기여 촉진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활용 미흡
- ⑩ 자연자원 관리 및 환경보전에 있어서 여성의 기여에 대한 인식과 지원 부족

IV. 주요 관심분야별 전략적 목표와 조치

- ① 여성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
 - 남녀관점에서 각국의 국내·국제적 경제정책 개발

- 정책과 계획의 대상목표를 빈곤여성으로 설정
- 농촌여성의 빈곤극복 지원
- 여성근로자(이주여성근로자 포함) 및 장애여성의 요구 반영
- ② 여성의 교육 및 훈련을 보장할 것
 - 만인을 위한 교육을 달성
 - 21세기를 위해 여성을 준비시킴
 - 교육을 남녀평등하게 함
- ③ 보건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증진할 것
 - 만인을 위한 보건서비스 제공
 - 출산 건강과 권리 증진
 - 여성건강에 관한 연구 조장
- ④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할 것
 - 성폭력의 근본원인 규명
 - 여성 인신매매 근절 및 특정상황하 폭력대상 여성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채택
- ⑤ 갈등해결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고 무장갈등 및 외국점령하 여성을 보호할 것
 - 평화과정에 좀 더 많은 여성을 참여시킴
 - 무장갈등 및 외국점령하 여성을 지원함
 - 난민 여성에 대한 원조를 보장함
- ⑥ 여성의 경제력 자립을 촉진할 것
 - 여성의 경제적 권리 확보
 - 자원, 고용 및 적절한 근로조건, 시장, 무역에 여성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 강구
 - 신축적인 근로환경 조성
- ⑦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촉진 요인을 강화할 것
 - 여성이 의사결정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보장함
 - 모든 직업에 있어서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참여, 기회를 제공함
 -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신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강구함
 - 평등한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
 -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지원촉진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함

- ⑧ 정책과 계획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남녀평등 자원 접근을 포함할 것
 - 계획과 평가에 있어서 성별구분 정보자료를 생산하고 확산함
 - 여성지위 향상 관련기구를 강화
 - 양성평등 분석기법 훈련
- ⑨ 여성의 인권관련 국제규범을 적용하고 시행할 것
 - 관련 조약의 효력을 보장
 - 국내 관행에 있어서 국제규범 적용
 - 법률문제 달성
- ⑩ 남녀평등 촉진을 위해 재래·현대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역할을 증강할 것
 - 미디어 정보와 참여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보장
 - 미디어에 있어서 성 고정관념 타파
- ⑪ 남녀 공동책임 증진을 위한 조치를 촉진할 것
 - 가사등의 책임분담 권장
 - 남녀의 대화 개선

V. 재정적 조치

-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예산배정과 사업조정을 통해 여성관련 사업(행동강령의 주요관심분야사업)에 대한 재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

VI. 제도적 조치

-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여성관련 기구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및 기구간 조정협력력이 중요함
- 각국의 여성관련 기구
- ESCAP 등 지역기구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등

NGO 포럼 개요 및 참가요령

정순영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전 세계의 여성에게 여성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NGO포럼은 여성문제에 관심있는 민간 여성단체나 개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1. 개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는 800여개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한 비정부기구(NGO)들이 자문기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5%가 비정부기구회의(CONGO)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NGO는 정부대표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각종 유엔회의에 참석한다. 이들은 표결권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압력단체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요의제에 대해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고, 발언권을 얻어 그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정부대표들을 설득하기도 한다.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제정할 것을 유엔총회에 제안한 것도 NGO였다. 이들은 세계여성대회와 병행하는 NGO Forum을 조직하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북경에서 개최될 NGO Forum '95는 CONGO가 설립한 NGO 기획위원회(NGO Planning Committee)와 NGO 추진위원회(NGO Facilitating Committee)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다. 기획위원회는 Forum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자문과 정보에 바탕한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위원회가 맡고 있다.

2. NGO 포럼의 연혁

IWY Tribune(1975)-멕시코 시티
6,000명의 여성과 약간의 남성이 참가하였으며 농촌여성에서부터 여성우주인 훈련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걸쳐 200개의 워킹샵이 열렸다. 동 대회는 여성발전을 향한 행동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단체들을 만들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NGO Forum(1980)-코펜하겐
8,000명의 여성과 약간의 남성이 참가하였으며 150개 이상의 워킹샵과 자문회의를 열어 가사노동임금, 여성해방론, 여성학, 성착취, 기술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동 대회는 국제적인 여성운동에 기여했으며 국제네트워크를 개발하는데 공헌하였다.

Forum '85(1985)-나이로비
15,000명이 총회에 참가하였으며, 1,400개 이상의 워킹샵, 전시회, 토의그룹, 영화 및 비디오 상영, 시위, 바자 등이 열렸고 정부간 회의의 의제와 더불어 법과

여성발전, 동성연애권리, 난민, 가정폭력, 정책결정 수준의 여성참여, 여성과 예술,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있었다. 동 대회는 여성문제에 대한 여성적인 시각과 접근방법을 위한 국제적인 강령을 제공하였다.

3. NGO 포럼 참가요령

기간: 1995년 8월 30일~9월 8일

장소: 중국 북경 근로자종합경기장(Beijing Sports Service Center for Workers)
동 장소는 세계여성회의가 열릴 예정인 국제회의센터(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개·폐회식은 인민대회장(Great Hall of the People)에서 열린다.

목적

전 세계의 여성에게 여성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동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다.

참가자격 및 절차

NGO Forum은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회의인 제4차 세계여성회의와는 달리 여성문제에 관심있는 민간 여성단체나 개인 모두가 참가할 수 있으며 남성의 참가도 환영한다.

Forum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비는 개인당 \$50, 신청마감일은 1995년 4월이 될 예정이다.

*다음의 자격을 갖춘 NGO는 제39차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및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할 수 있다.

—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자문기구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 지역준비회의에 참가한 단체
— 여성지위위원회의 승인받은 기타 단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995년 1월 13일까지 다음 주소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지위위원회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하여 단체의 성격과 세계여성회의와의 관련성, 여성문제해결에 대한 기여 등을 검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받은 NGO의 수는 공간상의 이유로 제한된다.)

NGO Accreditation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Two UN Plaza, Room 1204
New York, NY 10017
U.S.A.

Tel: (212) 963-3140
Fax: (212) 963-3463

참가인원

주최측인 NGO 기획위원회와 중국부녀연합회는 NGO Forum '95에 약 25,000~30,000명이 참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시설

NGO 추진위원회는 북경 근로자종합경기장 중앙에 참가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30개의 텐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기술의 과거·미래관으로 구분된 Technology Pavilion, 각국의 문화와 여성활동을 전시하고 음악회, 토론회 등이 열릴 Pacific Pavilion, 분쟁지역의 여성문제 등이 토의되고 종교의식 등이 행하여질 Peace Tent, 정부대표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될 Our Common-ground 등이 세워진다.

모든 시설은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기장은 자체의 호텔과 식당을 갖추고 있다. 쇼핑과 식당지역이 마련될 것이며 탁아소, 영상실, 응급실, 장애인을 위한 특별지원, 영상기구,

OHP 등도 제공될 것이다. 또한 이 경기장에는 수영장, 볼러스케이트장 및 체육관이 있다. 인근에는 참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40여개의 호텔이 있다.

참가방법

워크숍, 토의그룹, 전시, 공연, 문화행사 등에 참가 단체는 각 부문별로 프로그램을 조직할 수도 있고 타 단체에 의해 조직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Forum 기간중에도 워크숍 등 활동신청을 받아 추가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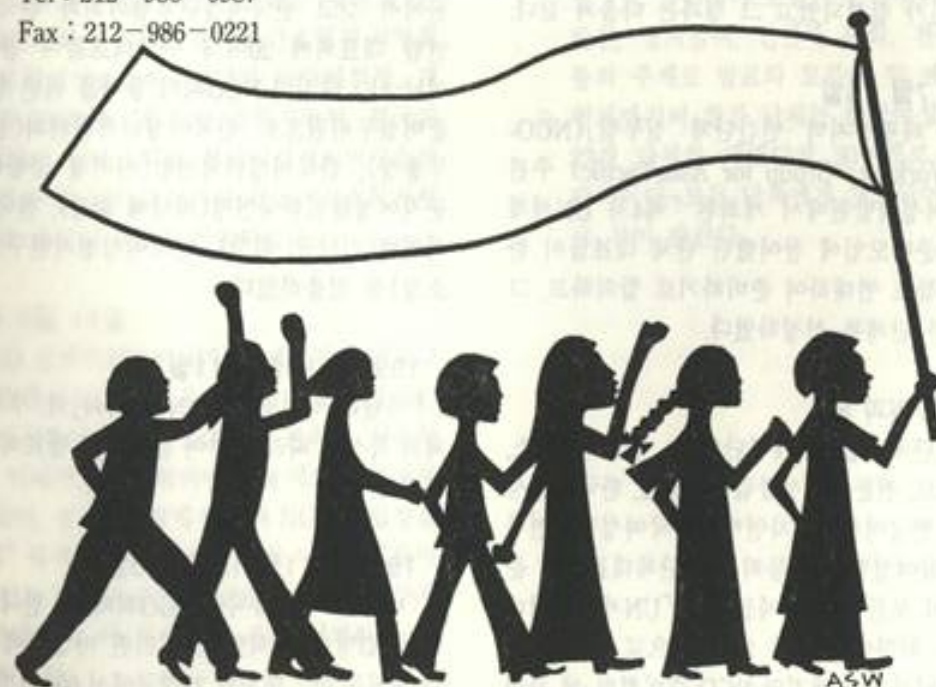
Forum 기간동안 활동프로그램을 조직하기 위하여 장소를 예약하기 원하는 단체는 다음 주소로 문의하면 된다.

NGO Planning Committee for the
NGO Forum '95
777 UN Plaza
8th Floor
New York, NY 10017
U.S.A.
Tel: 212-986-0987
Fax: 212-986-0221

호텔 및 관광예약

중국조직위원회 산하의 재정·행정위원회가 숙박료, 북경 시내·외의 관광코스, 쇼핑안내 등의 자세한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동 안내서는 1994년 8월경 각국 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다. Forum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참가자의 호텔예약은 주최측이 책임지지 않는다. 안내서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China NGO Forum Committee
50 Dengshikou
Beijing, China 100730
Tel: 86-1-512-7711-280
Fax: 86-1-513-6044



ASW

NGO포럼 참가를 위한 여성단체 준비활동

신낙균 (NGO 한국위원회 실행위원)

국내 여성단체들간의 이해와 연대를 강화하고 유엔등의 외부기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3년 7월15일, 아시아·태평양지역 민간단체 실무팀 주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최된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준비모임에 참여했던 단체 대표들이 한국여성단체들도 연대하여 준비하기로 합의하고 NGO 한국위원회를 결성,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4차 UN세계여성회의」와 「민간단체 회의」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국내 여성 단체들간의 이해와 연대를 강화하고 유엔 등의 외부기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NGO 한국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그 경과와 다음과 같다.

1993년 7월 15일

「아시아·태평양지역 민간단체 실무팀」(NGO-Regional Working-Group for Asia/Pacific) 주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최된 「제4차 UN세계여성대회」 준비모임에 참여했던 단체 대표들이 한국여성단체들도 연대하여 준비하기로 합의하고, 그 준비를 위한 단체를 선정하였다.

1993년 7월과 8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개별단체인 성폭력상담소, 소림티미스트,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한국여성사회교육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등의 9개 단체대표들의 준비로 국내외 모든 여성단체들에게 「UN세계여성대회」 준비를 위하여 세계를 5개지역으로 나눈 지역회의인 「마닐라 아·태지역 NGO 준비회의」에 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1993년 9월 15일

「아·태지역 NGO회의」 설명회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갖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외에 20여개 단체대표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아·태지역 NGO회의의 참여를 위한 한국 NGO 준비실무위원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김금래 사무총장), 한국여성단체연합(이미경 공동대표),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박영혜 회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신낙균 회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손봉숙 소장)을 선출하였다.

1993년 10월과 11월

「마닐라 아·태지역 NGO회의」의 주제들을 단체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 준비하고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1993년 11월 16일~20일

「마닐라 아·태지역 NGO회의」에 한국에서 15개 단체 33명이 참석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이 회의는 아·태지역 33개국에서 600여명이 참여한

지역회의였다. 이 회의의 결과중 하나로 한국, 일본, 중국이 주축이 되어 동아시아 포럼(East Asia Women's Forum)이 결성되었다. 한국측 연락책임자로 손봉숙 소장이 선임되었으나 후에 박영혜 회장으로 바뀌었다.

1993년 11월 30일

「아·태지역 NGO회의」 한국 참가단의 주관으로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대표들이 한국여성단체들을 초청하여 분야별로 보고를 하고 평가와 「세계여성회의」를 위한 토론을 하였다. 그 결과의 하나로 '95년 북경대회에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한국 NGO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실행위원을 선임할 것을 결정했다.

1994년 3월 31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개별단체로 29개 단체대표 32명이 모여 「제4차 세계여성민간단체회의」의 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행위원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이미경 대표와 여성의 전화 신혜수 부대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로 대한간호협회 최영희 회장과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의 박영혜회장, 개별단체로 한국YWCA연합회의 김현자위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신낙균회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손봉숙 소장과 종교를 대표하여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유춘자 총무등 8명을 선임하였다.

1994년 4월 11일

한국 NGO 실행위원들이 규약과 예산안을 만들고 실행을 위한 총무로 김은경을 선임했다. 본위원회는 「한국여성단체들이 세계여성대회에 관하여 신속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그 회의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준비하며, 정부와 UN에 대하여 NGO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목적을 두고 한국의 모든 여성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실행위원들은 정무제 2장관을 면담하고 이 위원회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1994년 4월 28일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대한민국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장관 및 전문가 간담회의에 신낙균 실행위원이 참가하였다.

1994년 5월~

- NGO Forum 한국위원회 소식지 1호가 발간되어 배포되었다.
- UNDP에 총무 인건비 지원청구를 하였다.
- '95년 북경에서 열리는 NGO포럼에 참가할 안내를 8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 제1차 동아시아 포럼을 준비중이다. '94년 10월 21~23일, 일본 가나카와 여성센터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 한국에서 20명이 공식대표로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고 그 외에는 참관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각 단체에 신청을 받고 있다.
- 제1회 NGO Forum 한국위원회 워킹을 개최 준비중이다. 여성개발원의 후원으로 '94년 10월 7일, 동아시아 포럼에서 다루어질 "여성의 발전, 정치참여, 인권과 문화, 전쟁과 평화"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의 참가 단체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23개 단체와 개별단체 30여개로 모두 53개 단체이다. 모든 단체에게 개방되어 있으니 적극 참여 바란다.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의 의의와 내용

노미혜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장)

행동강령(안)에서는 '인권', '폭력' 및 '무력충돌'을 각기 다른 주요관심분야로 다루어 여성의 보편적인 인권의 향유로서 모든 수준 및 분야의 평등한 참여와 성에 기초한 차별철폐를 강조하고 있으며 폭력부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원을 밝히고, 폭력 및 성의 매매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조치의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력충돌 및 기타 갈등상황 및 점령하의 여성부문에서는 갈등상황하의 여성보호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1. 행동강령(안)의 목표와 배경

여성지위위원회가 행동강령초안 작성시 사무국에 주문한 바와 같이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여성이 사실상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나이로비 여성발전미래전략」의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주요관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조치를 작성한 것이다.

제1장의 임무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동강령의 목표는,

- 경제 및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가속화시키고,
- 생애주기를 통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며,
- 평등, 발전, 평화를 위해 남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든 분야에 여성을 통합하는데 있다.

이 목표를 위해 국제사회, 정부, 비정부기구 및 사적부문은 「나이로비 여성발전미래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요관심분야에 관한 전략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985년 「나이로비 여성발전미래전략」 채택 이래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관계에서 전반

적으로 재구성과정의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재구성과정은 여성에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행동강령(안)은 제2장 세계적인 구도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세계적인 여건의 변화를 배경으로 작성되었다.

정치관계의 변화는 전쟁갈등의 위협을 축소시켰으나 민족주의의 부활과 인종분규로 인해 많은 지역이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민주화를 향한 진행은 보편적인 인권보장과 함께 가고 있다. 세계인권대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의 불가양, 불가결, 불가분한 것임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국가, 지역, 국제수준에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의미하며 또한 성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가 국제사회에서 우선목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위해 수행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침체는 국가간 경제관계의 재구성을 초래하였다. 세계시장경제에의 의존도와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정보, 보건 및

관련 서비스부문 등 신기술 관련분야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고용구조도 변화하고 있고,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성이 새로운 산업부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복지서비스부문의 규모감소와 공공부문의 장기적인 투자감소로 절대 및 상대적 빈곤비율이 증가했고 취업을 위한 남녀의 광범위한 이주현상이 수반되고 있다.

천연자원 고갈의 가속화와 기타 환경문제는 발전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세계적인 합의가 모아지게 하였다. 「UN 환경 및 발전회의」는 여성이 자연자원, 특히 농촌 지역의 자원보호와 관리의 주요한 수행자임을 밝히고 있다.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곧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 노년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인간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는 것처럼 남녀의 관계도 변화되고 있다. 남녀의 성취와 참여의 차이는 생물학적인 차이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역할의 결과임이 인정되고 있다. 생산 및 재생산의 역할사이의 남녀노동분업은 이제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 조치는 여성에게 초점을 두기 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남녀간 동반자관계의 진전을 강조하는 성역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여성문제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들 사이 및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차이들이 본질적인 차이이기 보다는 정도의 차이로서 문제의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자원의 차이이거나 수용능력의 차이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은 청소년, 노인여성, 장애여성, 이주여성, 난민여성, 강제퇴거여성 등 경험이 다양하고 또한 각기 특수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부문이 성에 기초해서 초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공통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여성의 경험, 지식, 시각 및 희망사항들의 다양성과 공통성의 양면이 여성의 힘의

근원이 되고 행동강령의 과업이 성취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2. 행동강령(안)의 내용

행동강령(안)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임무"를 기술하고 있고(statement of mission), 제2장은 세계적 구도(global framework)를 설명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주요관심분야(critical areas of concern), 그리고 4장은 전략적 목표와 조치(strategic objectives derived from the critical areas of concern and actions to be taken), 제5장은 재정적 조치(financial arrangements)를 그리고 제6장은 행동계획의 이행과 모니터를 위한 제도적 조치(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plan of action)를 기술하고 있다.

행동강령(안)의 제3장 주요관심분야와 제4장 전략적 목표와 조치에서 제시하고 있는 순서는 38차 여성지위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초안에서 주요관심분야에서는 다루지 않고 전략적 목표와 조치에서만 다루었던 '정보의 활용 부문'은 여성관련기구의 미흡에 대한 조치부문에 포함되어 소주제로 다루어졌다. 또한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장과 제4장의 서론이 추가되었다. 제4장에서 주요관심분야별 목표의 기술방식을 변경하였고 목표를 설명하거나 구체적 목표량을 제시하는 문단을 추가하였으며, 관련조치를 소제목으로 하여 구체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제5장의 재정적 조치부문과 제6장의 제도적 조치부문도 국가, 지역 및 국제차원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도의 개선, 강화방안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등 행동강령초안을 보완하였다.

38차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주요관심분야중 빈곤 부문의 본문에 구조조정정책과 프로그램 및 농촌 여성과 빈곤과의 관계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또한 폭력부문의 본문에 38차 회의에 제출된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조치에 관한 전문가회의」 결

과를 반영하고, 테러행위와 극단적인 종교적 관점에서 초래된 폭력을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전략적 목표 중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규범 및 기준의 적용', '평등의식 축진을 위한 매체의 역할 제고', 그리고 '평등달성을 위한 남녀의 공동책임 증진'은 기타 다른 모든 목표에 통합되어야 하며 별개의 목표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되었다.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안)을 아태지역 행동계획과 비교해 보면, 행동강령(안)은 세계각국의 행동계획의 기초가 되는 강령으로서 제4장으로 전략적목표와 조치가(향후 보완되겠지만)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아태지역 행동계획은 주요관심분야 별로 문제해결을 위한 광의의 목적을 기술하고 대상, 분야 및 과제별로 전략적 목표와 이에 따른 조치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아태지역 행동계획은 제1장 임무의 기술에서 행동강령(안)의 세가지 목표에 더하여 '가족, 지역사회, 국가, 지역 및 국제수준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의 마련'을

제안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평등한 참여를 한번 더 강조하고 있다.

행동강령(안)에서는 '인권', '폭력' 및 '무력충돌'을 각기 다른 주요관심분야로 다루어 여성의 보편적인 인권의 향유로서 모든 수준 및 분야의 평등한 참여와 성에 기초한 차별철폐를 강조하고 있으며 폭력부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원을 밝히고, 폭력 및 성의 매매행위의 근절을 위한 특별조치의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무력충돌 및 기타 갈등상황 및 점령하의 여성부문에서는 갈등상황하의 여성보호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평화과정의 여성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태지역 행동계획에서는 '여성인권' 부문에서 '여성의 대한 폭력철폐'와 '무력충돌 및 갈등상황하의 여성보호'로서 행동강령(안)에 비해 축소해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평화구축'부문에서 평화과정의 여성참여를 다루고 있다.

다른 한편 아태지역 행동계획에서는 빈곤, 고용, 교육 및 보건부문에서 대상, 분야 및 과제별로 전략적 목표와 조치가 세부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토 의>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전략

1.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행동강령이 강화되어야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1. 우리나라의 입장

과거 세계여성회의에서 여러 참가국 대표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간혹 자기 정부의 업적을 선전하거나 다른 나라 대표들도 놀상 되풀이하는 상투적인 문제를 언급하는데서 끝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호응을 얻는 나라 대표들의 발언을 보면 상당한 전문성과 연구에 입각해 있다.

이제는 우리의 여성국제협력도 전문화될 필요가 있으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참신성과 전문성을 지향하기 위해 다른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비정부기구의 전문성 있는 대표들이 정부대표단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회의에서의 우리대표의 발언내용이 세계여성문제에 대한 참신한 시각과 철학을 제시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할때 우리나라의 위상도 크게 제고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탈관료적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행동강령에 반영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전통적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다가 2차 대전 이후에야 남녀평등 규범을 헌법에 도입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국가로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전통적 문화의 장애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전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높은 여성교육수준을 자랑해온 나라로서, 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셋째,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서, 자유와 인권, 복지가 여성의 지위향상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넷째, 분단과 핵확산의 위협에 당면한 나라로서, 통일, 반핵, 평화, 인간의 존엄성 등이 여성의 지위에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의 건설한 가족제도 및 미풍양속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성의 존엄성을 해치는 여성의 성적 상품화, 음란퇴폐문화, 음란비디오 등에 대해 세계행동강령은 왜 침묵하는가? 여성의 가정내에서 행복할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의 장애에 대해서도 논

의가 있어야 한다.

2.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여성의 참여 촉진요인 강화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이사장으로서 본인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행동강령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동강령에서 논해지고 있는 많은 전략들이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가 없이는 타당공론에 지나지 않거나 그 이행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태평양 여성개발 행동강령이 여성정치참여에 대해 제시하는 조항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 시민, 정당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에 여성의 비율을 입법조치나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적 장애의 제거를 위한 쿼타제의 도입, 훈련과 정보제공 등을 통해 2000년까지 20%까지 증가시키도록 고무된다.

여기서 '고무된다'(are encouraged to)라는 약한 표현을, '촉구된다'(are urged to)와 같은 강한 표현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쿼타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홍보하고 여성계는 우리나라 정부와 정당이 20% 쿼타제를 준행하도록 노력하는데 행동강령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정책결정에서의 권력분산이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인정해야 한다.

행동강령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회피하고 '권력분산'과 같은 개념을 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과 여성의 권리와 연관성을 강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에의 여성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여성이 정부, 노동조합, 기업과 지역단체 등에 평등하게 대표되도록 하기 위해 능력있는 여성후보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이 합심하여 여성인명록을 작성할 수 있다면 여성정치참여는 훨씬 용이하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행동강령의 이러한 조항들이 널리 검토되고 홍보되어야 한다.

-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부, 행정부, 법, 노동조합, 고용자단체 및 지역단체에의 평등한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의 정치참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무하기 위해 특히 비정부기구의 여성사회교육의 기능이 중요함을 역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 편견의 극복을 위한 언론의 활용, 단체활동, 교육 및 사회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 차세대 지도자들을 위해 훈련 등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 육성, 훈련하고 리더십을 개발해야 할 중요성 및 이에 있어서 정부, 정당,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부각되어야 한다.

3. 맺는말

우리나라 여성은 훌륭한 가능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아직도 남존여비문화의 잔존 속에 많은 억압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다.

세계회의의 행동강령에 우리민족의 독특한 경험에 입각하여 많은 창조적인 공헌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세계회의에 나아가 그럴듯한 발언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여성문제가 국제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는다. 무엇보다도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선거에 각 정당이 20% 쿼타제를 실시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도움으로써, 시민의 반인 여성의 정치적 소외를 종식시키는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야말로 현단계 여성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우리 정부대표의 발언이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행동강령에서 이 문제가 보다 강력한 구속성을 가지고 제기될 수 있도록 여성계는 단합하여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수동적 요구에서 능동적 제시가 필요하다.

박보희 (한국사회정보연구원 원장)

국제연합이 내년에 예정하는 2대 국제회의에서 그 회원국들로 하여금 채택토록 하고자 준비중인 행동방안들은 새로운 것들은 아니다. 다만 강조점이 달라졌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여성발전 행동계획이 여성의 경제참여와 보건, 교육 등 기본 서비스의 양적 질적 증진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면 이번의 행동방안들은 성간 힘의 균형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 "Empowerment"가 여성관련 국제회의의 catch word가 된 것도 이 때문이겠다. 성차별 폐지를 인권적 차원에서 다루려는 움직임, 여성의 보다 직접적인 정치참여 방안의 모색, 광역 경제정책 방향 설정은 물론, 환경관리, 과학/기공학 활용, 국제분쟁 내지 갈등 해소, 나아가서 평화정착 노력에의 직접 참여 요구 등이 이 변화를 구체적으로 표출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힘있게 되기 위한 제언

경제참여위주 전략이 여성의 실질적 지위향상에 미친 공헌이 기대에 크게 뒤진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정치, 기타 영역에서 보다 직접적인 국사의사결정과정에 참여코자 하는 전략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전략은 어디까지나 전략이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실효를 거두려면 여러가지 수반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란 어떤 것들인가? 과거 경험에 비추어 다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결의(Commitment)

여성 개개인, 여성단체, 유관단체, 사회 지도층, 각국 정부, 국제기구를 막론하는 의지의 집결이 필

요로 된다. 이 의지가 국제적으로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 계영역간, 부문간 협동과 조정을 통해서 지식과 자원을 창출, 동원하고 행동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제도, 장치를 만들고... 필요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광의의 정치적 의지 (political will)로 대표된다. 이러한 의지의 결핍이 지난 20년간의 여성발전 행동계획 이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강력한 동기

여성은 전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이다. 그들이 힘을 합친다면 성 평등 실현을 비롯한 여성20년대 목표를 가까운 장래에 달성하지 못할 리 없다. 지난 수십년간의 여성지위 향상 노력은 소수 지도층 여성들이 중심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여성 20년대의 지금까지의 성과는 대다수 여성들이 전력을 다하여 동참해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보다 충분한 성과를 바란다면 여성들의 보다 광범하고 투철한 자제동원은 필수조건인 하나이다.

행동을 위한 결의는 동기의 강약과 직결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성들 자신과 그들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 행동 동기를 부여하는 무엇이 필요하다.

3. 생존욕구와 또하나의 행동무대

그렇다면 다른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는가? 생존욕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물리치고 그 발전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를 생각하게 된다. 환경 및 소비자보호영역에서 이미 발로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그러할 수 있는 이들 욕구를 생각한다. 즉 여성들은 코펜하겐/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을 계

속 추구함에 있어 경제참여에 추가하여 또하나의 전선을 환경보전과 소비경제 영역에서 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한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두 영역은 서로 밀접하며 국내·외적으로 21세기의 주요 발전 현안이자 그 전략의 중심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는 대부분 나라에서 여성들은 이미 이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들이 이 영역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집결된 노력을 펼쳐 환경과 생산 경제 사이에, 그리고 환경과 과학/기공학 사이에 다리를 놓고, 생산경제와 소비경제 사이 그리고 소비경제와 환경 사이에도 필요한 연관을 짓는다면 그들은 21세기 경제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환경의 파괴를 막아 자신들과 후손의 생존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써 그들은 정치적 영역에서도 실질적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원치 않아도 다가오는 세기의 주역이 될 것이다.

4. 수동에서 능동으로의 전환

지금 우리 여성들은 경제, 사회, 정치 등 영역에서 힘을 나누어 달라고 하고 있다. 수천, 수만년을 두고 힘을 박탈 당했던 우리들로서 이 입장은 당연하다. 그러나 힘은 그 본질이 그러해서 스스로 힘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힘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여받은 힘은 그 행사에 있어서 의타성을 벗어나기 힘들고 그러한 힘의 행사는 계속적인 종속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성들은 결국 스스로 힘있게 될 길을 찾아 가야하는 데 환경, 소비경제, 과학·기공학 영역에서 인류의 생존과 그 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해 제2의 전선을 열고 운영하여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그

렇게 되기 위한 첩경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UN이 제시한 행동강령(안)은 가지 가지 좋은 방안들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나열적이라 하겠고, 현시점에서 요청되고 있는 전략적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으며, 그 핵심에 바탕한 통합성에 있어 미비한 듯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가 소비경제 영역의 소요 사항들(requisites)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더 좌우될 가능성에 비추어 이미 여성들이 상당한 발판을 가지고 있는 이 부문에서의 여성참여의 의의를 아직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같은 시각에서 한 두가지 더 바람직한 것들이 있다. 그 하나는 강령의 문맥과 message들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능동적 mode로 제시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피해자 syndrome에 사로잡힌 채 남성들로 말미암아 자행되는 「이 불평등, 이 박해를 거두어 달라」고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물리치겠다 하는 것이 주 맥락이 되는 강령이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5. 행동방안의 체계화

다른 하나는 여성들을 힘있게 만들기 위한 여러 과제, 과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집중된 그리고 통합적 접근안이 포함될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안은 밀도 높은 지식과 정보의 창출에서부터 선택된 전략부문에서의 집중적 인력훈련, 배치 그리고 활용, 공·사 영역간의 유기적 협동체제 조성, 다국적 혹은 국제적 협력활동에 대한 구체적 구상, 대중매체의 체계적 활용, 사업자금의 구체적 조성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행동강령 불이행에 따르는 불이익을 명시해야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1975년 멕시코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여성의 해」 기념 세계여성대회는 6개장 219조항의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국내, 지역, 국제 수준의 추진 사항을 명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개발원이 탄생하고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됐으며 많은 법이 바뀌고 여러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와 변화가 있어 왔다. 이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년 열리는 베이징 여성대회는 이제부터의 세상 만들기를 위한 청사진이 나와야 할 것이다.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안)의 경위를 보면 21세기에 평등현실화를 위한 집중 조치로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는 설명이 있다. 대체로 여성 지위위원회가 토의결과 제시한 수정안은 포괄적으로 여성의 공통적인 성취목표와 전략을 담고 특히 미흡한 점을 잘 기술했다.

나름대로 본인의 이해를 근거로 몇가지 생각을 제의하였다.

1. 대중매체 활용이 미흡했던 점에 공감한다. 그러나 대응책에서 정보매체에 대한 전달매체 역할제고, 정보접근 기회보장과 성역할 고정관념철폐 뿐 아니라 매체의 수용자가 전적으로 여성이란 점을 부각시키고 수용자운동을 펴서 적극적으로 매체내용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조정기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2. 5장의 재정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비율로 표시해서 시행목표를 가시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3. 6장의 제도적 조치에서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여성관련 기구의 기능과 역할강화 및 기구간 조정협력에 있어서 여성관련 기구 뿐만

아니라 모든 유엔관련 기구와 회의에 일정비율의 여성대표 참여를 표시하여 여성끼리의 모임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기구와 행사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지난해 세계인권회의에서 확인한 여성의 보편적 인권보장을 기본축으로 하여 성차별 철폐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기본인권 향유에 미흡한 점을 점검 수치화하여 목표달성에 접근해야 한다.

5. 생애주기에 대한 연령별 정책과 계획수립에 부가해서 수명연장에 따르는 노년층의 부양과 노인환자 간호문제가 여성의 사회참여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부각시켜 노년층 복지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야 합니다.

6. 사회변화와 경제구조 변화로 말미암아 기업, 국가, 지역간의 상호의존도가 증가하고 다국적기업이 활성화하는 현실, 그리고 정보와 서비스분야의 발전등이 다소 여성에 유리해지는 흐름을 포착해서 여성에게 신기술 훈련의 기회를 집중시키고 급격한 사회변화의 충격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여 남녀의 새로운 역할과 변화에 대한 적응문제를 구조적인 변화의 과제로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7. 제1회 여성대회 이후 20년의 시간이 가져다준 사회변화에 주목하고 환경파괴와 발전위주의 경쟁을 지양하며, 자연자원 관리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병행하는 남성참여와 조화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8. 인류사회는 정보화시대에 공공체, 자율화시대를 향하면서 창의적인 새로운 질서와 가치추구를 선택하게 되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하여 적합한 기술원리와 인간의 완전한 조화를 기대하는 시점에 다달았다.

물질만능시대를 벗어나면서 인간중심의 경쟁과 자기보전, 소비강화 등의 체계에서 그 후유증인 오염, 범죄, 폭력, 불평등, 파괴 등 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 균형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환경보존, 삶의 중요성과 협력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간이 인간개체의 문제 뿐 아니라 전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공동체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사람과 생물, 무생물의 상호작용을 인정하며 모두의 협력을 중심과제로 다루는 차원에 이르렀다.

남성대 여성의 시각에서 벗어나 전인류의 균형 잡힌 공동체문화 형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구조의 기반으로 필수적인 남녀의 협력차원에서 21세기의 평등 실현을 시도해야 하겠다.

지난 몇년 사이에 활발하게 확산되는 "남성학"의 내용도 남성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틀에서 해방되어 인간의 자유로움을 찾고 여성과의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뒤떨어진 여성을 끌어 올린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성차별문제를 미래를 위해서 남·녀가 아닌 인간의 문제로 다루는 철학적 바탕을 강조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물리적 여건에서 남성과 여성이 특별히 구별해서 할 일보다는 적절한 재능을 적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도 함께 휴식도 함께 인간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현재의 성차별이 여성과 남성의 균형을 깨뜨려 조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21세기의 평등사회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남, 여성관을 바꾸고 사회변화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베이징 여성대회가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사회상과 미래사회에 걸맞는 참신한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행동강령의 시행착오에 있어서 불이행에 따르는 불이익이 명시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사회참여 기회박탈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치는지 계량적인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



제4차 세계여성회의 (NGO Forum 95)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일 시: 1995. 8. 30~9. 8.
장 소: 중국 북경 근로자 종합경기장

참가 자격: 민간 여성단체, 개인

참가 등록비: 50\$

참가 신청 마감: 세계여성회의 본부 (1995년 4월 예정)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4년 10월 30일)

참가신청서 제출처: 세계여성회의 본부 NGO Accredital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Two UN Plaza, Room 1204

New York, NY 10017, U.S.A.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용산구 한강로3가 40-427 Tel: 793-5196)

참가 경비: 항공료와 숙박료 포함 약 150만원(1994년 6월 현재)

(서울 ↔ 북경 직행운항시 항공료 인하될 예정)



▶ 여성학 지상강좌

여성해방론과 그 실천에 관하여(III)

추애주 (연세대 여성학 강사)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은 자유주의 여성해방론과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이 여성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였다는 불만위에서 발생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여성의 직관력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은 남성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하여 가부장제적 지식개념을 비판한다.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은 자유주의 여성해방론과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이 여성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였다는 불만위에서 발생한 이론이다. 맑스주의 인식론의 틀 안에서는 자유주의 여성해방론과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을 기본적인 것으로 본다.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은 자본가 계급을 공유하는 중산층 여성들의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은 노동계급의 남, 녀들은 서로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와 노동자 계급의 세력강화에 중점을 둔 이론이다. 급진주의 여성해방론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이 두가지 기본 가정에서 왜곡된 형태라고 맑스주의자들은 보고 있다.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의 인식론은 맑스주의와 유사하다. 어떤 사회에서도 지배집단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신비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무엇이 믿을 만한 지식이며 이러한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하여서는 급진주의의 독자적인 특유한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 서양의 인식론에서는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간주하는 특정한 인간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에서는 여성의 직관력을 여성의 특수한 지식의 근원으로 본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며 감정이입의 원인과 결과이다. 그리고 타인이나 전체 우주와의 신비한 연계감 내지 동일시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다. 여성들은 각자 이 직관

력을 통해서 정신의 확대와 깊이, 초 심리학적이고 여겨지는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여성의 직관력이 과연 여성에게만 있는 유전적인 것인지, 특별한 재능인지, 여성문화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것인지는 설명을 유보하고 있다. 이 이론은 여성의 직관력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은 남성이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하여 가부장제적 지식개념을 비판한다. 가부장제적 세계관은 분리, 구분, 대립이 핵심이며 그 특징이다. 정신-육체, 자아-타아, 이성-감정, 연구자-연구대상이 구분, 대립되어 한 쪽은 다른 한쪽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 받는다. 또 한편으로는 가부

장제적 맥락속에는 위계서열 구조가 수축되어 있다. 급진주의 이론에서는 이에 대항하여 비 이원론적, 비 위계적 세계관을 발전시킨다. 세계는 모든것이 개인각자와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전체로 파악된다. 가부장제의 이원론적 구조에 의한 구분, 대립, 분리는 유기적 전체로서의 현실을 파편화시킨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 사회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관계구조가 발생하는 곳이며 연속적으로 진화하는 현실의 장이라고 하면서 가부장제의 시간성에 대한 직선적 개념도 비판한다. 급진주의에서는 지식획득의 방법은 의식화 과정으로 본다. 우리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현대사회의 모든 조직에서 여성을 종속시키는 성차별적인 규범의 메커니즘을 의식화과정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족, 성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며 동시에 여성종속을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론이 없다고 비판 받는다. 일부 급진주의 학자들은 여성들의 눈에 보이는 사회현상에 대한 그들의 관찰이 이론을 내포한다고 보고있다. 그들은 가부장제적 구조에 내포되어 있는 폭력성, 성적 노예성이 여성의 함정인 동시에 현실적인 사회현상이라고 지적한다.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의 인식론은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모

두 다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모두가 합의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급진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의 비판은 사회현실을 남성과 여성의 대결, 가부장제 주의자와 여성해방론자의 대결로 설명함으로써 자본가와 노동계급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분리를 흐리게 하여 자본주의 세계를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급진주의가 자유주의, 맑스주의와는 달리 여성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고통과 분노가 반영되어 있는 이론이므로 가부장제적 개념들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여성 중심적인 틀을 만들어 남성의 지배를 폭로하고 이를 은폐시키는 신화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을 소개하겠다. 시몬느 드 부아르(1904-1988)는 자신의 저서인 "제2의 성"을 통해서 여성이 가부장제적 신화와 베일 속에서

타자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녀는 여성이 남성의 사고속에서 타자로 규정된 이유와 이러한 여성의 현실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가를 생물학, 정신분석학, 유물사관을 기반으로 토론하고 다시 역사적으로 구분하여 그 실증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남자들이 여자를 "여자"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에서 정의하며 여성을 의타적인 존재, 비본질적인 존재로서 의식한 결과가 바로 여성계급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때, 인류가 유목시대에 들어오면서 여성이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의 노동력에 부응하지 못하자, 자연히 식량생산에서 여성은 무능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여성이 생존을 위해 남성에게 의존하자, 남성들은 사유재산제도와 가부장제에 입각한 가족제도, 사회제도를 만들어 여성을 남성의 예속자로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법률, 관습을



만들어 여성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여성을 재산상속과 공적인 영역에서 제외시켰다. Beauvoir는 여성 억압의 원인을 생물학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성의 생명생산은 자연적인 것으로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다른 것으로 변형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종류의 노동이 아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생명생산처럼 자신의 육체의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물학적 조건이 남성으로 하여금 식량생산에 전심전력을 하게 만들었다. 고기잡이, 사냥을 위해서는 도구의 고안, 일의 계획, 타인과의 협동,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남성은 이런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자신의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여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적인 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서 생산노동에서 제외된 여성은 세계를 자신의 생활무대로 만들지 못하였으며, 인간으로서 가치 부여가 거부되어 예측적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남, 녀의 생물학적 조건은 인정하지만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단순한 자연적인 종(species)이 아니다. 인간의 정의는 인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를 만들어 가는 역사적인 관념이다. 여성의 현실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생산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은 남성과 대결하여 여성의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야 한

다. 인간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자연적인 것은 없다. 여성은 남자들이 타자로서 살도록 강요한 수동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선택해야 한다. Beauvoir는 여성도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하여 해방된 인간,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개인의 기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기회는 "행복"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자유"라는 용어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eauvoir는 처음에는 실존주의적 의식과 맑스주의 방법을 여성해방의 이상적인 모델로 보았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를 여행하고 난 후에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소련과 중국에서의 실험은 여성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데 실패했다고 보았다.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여성해방이란 것은 생산요소의 변혁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그밖의 여성의 재생산, 성관계, 사회화의 변화는 사회가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후에 그녀는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의 기수가 되었다. 그녀가 실천으로 주장하는 것은 여성운동에서는 star-system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운동이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인쇄물, 발행물은 개인의 이름이 아닌 단체의 이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사노동에 관하여서는 어떤 형태의 가사노동에 대한 댓가도 막아야 하는데 이것은 여성이 가정에 남아 있게 되

어 남, 녀 차별이 조장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사회에서 활동해야 하며 여러가지 생활방식을 통해 육아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 그녀는 가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가정에 대한 신화, 모성본능에 대한 신화가 여성해방을 방해할 것이며 여성은 영원히 억압될 것이라고 보았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나온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의 중요한 교과서는 Kate Millett의 "성의 정치학"과 Shulamith Firestone의 "성의 변증법"이다. 그외에도 Ti-Grace Alkinson의 "아마존 오디세이"와 Mary Daly의 "여성-생리학: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의 메타윤리학"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면상 위의 두사람만 소개하겠다.

Kate Millett(1934)은 "성의 정치학"에서 한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할때는, 이 두집단의 관계는 정치적 관계라고 보았다. 양성의 관계도 정치에 미루어 볼 수 있다고 전제하면, 남, 녀의 관계는 지배, 복종의 관계이며 이 관계는 가부장제를 통해서 이데올로기로 발전되었다. 가부장제도는 우리사회 질서 속에 뿌리박혀 있어서 한번도 검토된 일도 없고 의식조차 하지 않지만 엄연한 사실로서 존재한다. 가부장제적 제도는 남성우월성에 기반하며 여성이 남성에게 봉사하는 역할을 수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여성을 이러한 조건에 묶어두는 방법은 역사적으로 불태 잔인한 폭력이었다. 전족, 베일, 음

핵절제와 같은 잔학행위는 물론이고 강간, 가학적인 문학작품, 도박적인 이성애를 묘사한 작품, 극단적으로는 포르노그래피가 가하는 관념적인 폭력도 포함된다. 그녀는 Henry Miller, Norman Mailer, Jean Genet와 같은 인정받는 남성작가들이 그런 여성의 성에 대한 묘사는 여성을 모욕하고 저질화시키고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미화되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바로 성의 정치학이 개인의 성관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Millett도 가족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이었으며, 가정은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장소로서, 가부장제 유지를 위한 여성의 기질, 역할, 지위를 재생산한다고 보았다. 그녀는 여성이 해방되려면, 남성우위의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적 사회화 과정의 폐기, 사유재산제도와 일부일처제 가족형태의 변혁, 성 역할분리 폐지, 여성의 완전한 경제적 독립, 성도덕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Shulamith Firestone은 "성의 변증법"을 통하여 여성억압의 원인을 사유재산제도와 계급제도에 의한 것이라는 맑스주의의 경제결정론을 배격하고 남, 녀의 불평등한 관계는 생물학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녀는 사적 유물론의 관점을 도입하여 성 그 자체에 기초를 두고 페미니스트 혁명을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여성이 재생산 수단의 통제권을 가지는 것

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는 경제적인 원인이 아닌 다른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많다고 보고, 여성의 예측은 여성의 생물학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남, 녀간의 카스트적 패러다임은 바로 생물학이 제공했다고 보았다. 이 생물학에 의해서 남, 녀는 자연적으로 동등한 특권이 부여되지 못하였다. 사회가 여성을 억압하기 이전에 여성은 임신, 출산이라는 고통스러운 생물학적 경험이 강요되었다.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무력감 때문에 생존을 위해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심리적 측면에서 여성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신생아는 오랜기간 동안 의존상태에 있으므로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의존성의 결과에 의한 것이다. Firestone은 여성의 억압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남, 녀 성별분업을 고착시키는 생물학적 가족의 전제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남, 녀간의 로맨스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보고 이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의존상태에 두기위한 아편이라고 하였다. 가부장제적 문화에 의해서 여성은 남성과 로맨스, 섹스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관념이 조장된다. 정치적 보상과 섹스는 동일시된다. 그리고 여성은 평가절하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여성은 남성과 로맨스, 섹스를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관념이 수립된다. 그녀는 남성, 여성 문화에서 남성문화가

남성의 정서적 병약함을 반영하는 반면 여성문화는 억압받고 사사로운 영역에 속하며 남성창조자를 위한 보조자의 문화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녀는 여성이 이런 상태에서 해방이 된다면 자본주의와 같은 사회제도에 대항하는 혁명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연에 대항하는 혁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자연을 극복하는 것은 피임법, 인공수정등의 생명과학과 인간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능하다. 그리고 생물학적 가족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모색하는 것이다.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에서는 어떤 경제구조에서도 여성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생물학을 그 원인으로 보았다. 남, 녀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설정했지만 생물학적 결정론의 이해는 여성의 억압을 영속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개혁이나 개량, 변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해결방법으로 과학기술의 도입이다. 그러나 현실점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자는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손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 세번째는 여성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권력을 잡으면 또 다른 성차별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이 급진주의 여성 해방론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이다.

납량특집극 'M'이 갖는 사회적 의의

'M'은 우리 드라마도 외국의 납량극처럼 소재의 다양함, 특이성 그리고 여러장비의 동원으로 인한 효과의 극대화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성폭력, 낙태에 대한 경고, 생명의 존엄성 등을 일깨워 준 점도 큰 의의가 있으며 요즘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만큼 영향력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8월31일 모임을 갖고 MBC 납량특집 미니시리즈 'M'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의하였다.

유난히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 속에서 방송사마다 납량극을 방영했는데 그 중에서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M'은 예전의 틀에 박힌 옛날 이야기 수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서스펜스를 가미한 드라마로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시청률에 있어서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시청률이 높았다고 해서 작품의 완성도까지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리라 고 생각되는 몇몇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런류의 드라마가 양적, 질적으로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논의에 임했다.

1. 내용에 대한 논의

'M'은 매디컬 서스펜스 드라마라는 점에서 의학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드라마이고 사건의 주요 무대로 병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M'은 수술도구에 남아있다가 같은날 낙태수술을 받으려는 다른 산모(마리의 어머니)의 태아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다. 그런데 기발한 착상이긴 하지만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너무 취약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청자들은 드라마가 허구라는 것

을 알고 있지만 드라마를 보고 있는 순간만큼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어한다. 그러나 허구성이 짙으면 그 순간 현실로 돌아와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좀 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도록 애써야 할 것 같다.

그 수술 도구의 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어 6개월 후에 마리를 분만하게 되는 마리아머니가 수술 당시에는 임신 4개월 정도인

데도 만삭의 몸으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여겨진다. 또한 'M'의 존재는 병원과 마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로 극중에서 경찰의 개입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회에 갑자기 많은 경찰들이 동원되어 마리를 사살하는 것도 너무 엉뚱한 결말이었다. 마지막에 낙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간것도 이 부분은 시청자의 몫으로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남겨 두었다면 드라마의 작품성이 더 돋보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만약 낙태에 대한 경고를 강하게 남길 의도였다면 오히려 'M'의 존재가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마감하는 편이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M'이 뜨거운 여름밤의 열기를 어느정도 식혀주는 역할을 해 준 것은 틀림없지만 서스펜스물로서는 느슨한 스토리 전개로 전체적으로 긴장감이 모자랐고 비록 'M'이 피질을 옮기는 수단이기는 하나, 동성끼리의 짝한 키스 장면도 사회윤리적인 기준으로 볼때 삼가했어야 하리라고 본다.



2. 구성 및 표현방식

요즘 청소년 취향 드라마들이 탄탄한 구성에 기초하기 보다는 시각적 효과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M'도 예외가 아니었다. 장면 마다의 미적요소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특수효과, 컴퓨터그래픽, 극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적절한 음악등은 우리 드라마의 기술적 발전을 느끼게 해주었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치밀한 구성과 전개를 뒷받침하지 않고서는 눈요기로 그칠 위험도 내포한다는 사실은 인식해야 할 것 같다. 배역에 있어서도 군데 군데 극중 인물과 연기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방송사에서는 스타를 만들기 보다는 역량 있는 연기자를 키우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3. 맺는말

'M'은 우리 드라마도 외국의 납량극처럼 소재의 다양함, 특이성 그리고 여러장비의 동원으로 인한

효과의 극대화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으로 앞으로의 드라마에 큰 자극제가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해 주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성폭력, 낙태에 대한 경고, 생명의 존엄성 등을 일깨워 준 점도 큰 의의가 있으며 요즘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만큼 영향력도 주었다고 생각한다.

'M'은 종영 후에도 'M 신드롬'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었는데 이는 한편의 드라마가 주는 사회적 여파를 증명한 셈이다. 이 드라마는 사회적으로 드라마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가 되었다. 어쨌든 'M 신드롬'이 시청자에게나 제작자들 모두에게 드라마의 사회적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리: 전상금, 한정희(본회 매스컴 모니터)

세계은행, 차관제공계획시 그 나라 여성문제 반영할 것을 제의

이영남 (연합통신 외신국 기자)

선·후진국 안가리는 가정폭력

전세계 가입연령중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건강상의 문제 중 20%가 폭력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배우자 또는 가족들에 의한 이같은 폭력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세계은행이 최근 보고했다.

세계은행은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의 개발을 위한 유엔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특히 치료시설이 부족한 제3세계에서 노동력 상실로 이어져 사회, 경제 발전까지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또 과도한 음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행사의 가능성이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을 학대하는 남성들은 대개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으나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천부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상에는 아내를 구타하는 일이 전혀 없는 곳도 있지만 보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배우자 폭력이 결혼생활의 한 과정으로 용인되고 있다.

특히 세습적 계급제도인 카스트가 남아 있는 인도의 하층계급에서는 남성의 75%가 아내를 구타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남미의 에콰도르에서는 아동 복지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 80%가 남편에게 매

맞은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코스타리카에서도 여성 환자의 54%가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으며 조사에 응한 일본 여성 8백명의 설문 분석해본 결과 60%에 가까운 여성들이 남편에게 손찌검을 당한 적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케냐 여성의 42%도 주기적으로 남편에게 얻어맞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사실 여성의 40%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세계은행은 회원국의 차관이나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 배우자의 폭력을 비롯한 여성문제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인도 지방의회 딸도 상속받게 법개정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 의회는 최근 힌두교 교리를 따른 상속법을 개정, 딸도 아들과 같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인도에서 가장 부유하고 진보적인 이 주의 이같은 조치는 주지사의 서명으로 곧장 법제화됐는데 의회대변인은 이로써 성차별 편견과 신부의 지참금제도를 타파하는데 전진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이밖에도 공무원직의 30%를 여성 인력으로 충당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특정집단을 위한 고용촉진 제도는 카스트제도 아래서 차별 받는 하층민 계층만을 대상으로 해왔다.

이 주 의회가 여성권리신장을 위해 걸정한 이밖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 채용 때 남녀를 공동하게 대우한다. 경찰서의 25%는 여성 경찰관의 지위아래 둔다.

-여성관련노동법규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여성특별감독반을 노동부내에 둔다.

-여성에 대한 폭력사태를 다루는 재판에는 소송비를 면제한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회가 이루지 못한 것은 힌두교의 결혼법을 고쳐 결혼 이후 남편의 재산을 부인이 공동소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만의회의에 여성 진출

오만은 걸프지역 아랍국가중 처음으로 여성에게 국회의원 선거 및 피선거권을 부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허용했다.

이 나라의 의회적인 의석 80석의 슈라(국가평의회)는 지난 7월 23일부터 의원후보 지명절차를 시작, 2명의 여성이 후보로 지명됐다.

이번 조치는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일반인들의 의식도 다른 지역에 비해 진보적인 수도 무스카트의 주변 6개 주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정치 이외의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진출을 보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역할도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후보지명자중 하나인 타이바 알 마왈리는 11년간 라디오 뉴스 아나운서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는 지명후 기자회견에서 인구 1백50만명인 이 나라의 여성의 역할

확대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슈라 의원후보는 59개주별로 사회 원로들과 저명 기업인, 지식인들이 지명하는데 국왕이 1백60명의 후보중 80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문들은 정치 소식통들을 인용, 2명의 여성 후보중 최소한 1명은 임기 4년의 슈라 의원으로 선정돼 내년 1월 새 회기부터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성의 역할이 확대된데 대해 아직도 다른 걸프지역 아랍국가들처럼 여성의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이 나라의 인사들도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비가시 빈 사이드 알사이드 무스카트 시장은 "이번 조치는 오만 여성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며 여성들에게 이 나라의 발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년전 출발한 오만의 슈라는 협의기능만을 갖고 외교, 국방, 안보 등에는 결정권이 없는데 오만을 제외한 다른 걸프지역 국가들은 명목상의 선거조차 없이 슈라 의원들을 정부가 직접 선정한다. 외교관들은 슈라가 결정권이나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의 여론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어떤 정부각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걸프지역 국가중 유일하게 의회를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쿠웨이트에서도 여성에게는 아직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파키스탄, 여성 고법판사 임명

베나지르 부토 파키스탄 총리는 회원 3명의 여성 법조인들을 이 나라 최초의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부토총리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구가

전세계 가입연령중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건강상의 문제 중 20%가 폭력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배우자 또는 가족들에 의한 이같은 폭력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세계은행이 최근 보고했다. 보고서는 사실 여성의 40%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세계은행은 회원국의 차관이나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 배우자의 폭력을 비롯한 여성문제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많은 편자브주 수도 라호르의 고등법원 판사로 모두 변호사인 이들 3명을 포함한 20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정부 소식통들은 부토 총리가 법조계 여성인력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앞으로 다른 주에서도 추가로 여성 법조인들을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 최초의 여성 총리인 부토의 출범 9개월째인 정부는 폭력 피해자 여성들을 돕기 위해 여자경찰관들로 운영되는 경찰서 설립에 착수했으며 하급법원에도 여성판사들을 대거 임명했다.

미육군·해병대, 여군에 전투직 확대

미국 육군과 해병은 여군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라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최근 8만개의 전투지원직을 추가로 여성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발표했다.

이 조치로 여자 해병도 군함에 탑승하고 육군과 해병의 여군은 대공포대와 같은 부대에 배치된다. 그러나 기갑부대나 보병과 같은 지상 전투부대에 여군이 배치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여군의 전투지원직 배치에 반대해온 육군과 해병의 남성 장성들은 지금까지 여성에게 금지됐던 3만2천7백개의 육군 전투지원직과 4만8천개의 해병전투지원직을 여성에게 개방기로 하는 타협안을 마지못해 작성, 페리 장관이 이에 서명했다.

한편 페리장관은 명령에 따라 정예 특수전투부대 소속을 제외한 육군 및 해병의 모든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것이 여군에게 허용된다.

이번 발표는 이미 지난 2년간 여성의 군함 탑승과 여성의 제트전투기 및 기타 군용기 조종을 적극 허용해온 해군과 공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클린턴 정부의 레스 에스핀 전국방장관은 작년에 미국 여군이 걸프전에서 당당한 역할을 한 것을 설명하면서 육군과 해병에게도 여군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시했었다.

1백60만명의 미군중 여성은 9만7천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여군은 지금까지 승전의 길이 열려있는 중요 전투부서에 배치되는 것이 금지돼 왔다.

회교비판 여성작가, 스웨덴에 피신

여성차별적인 회교 경전 코란을 개정해야 한다는 발언과 회교도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소설 '수치'(SHAME)의 출판으로 조국인 방글라데시에서 발발일 곳을 잃고 쫓겨다니던 여성작가 다슬리마 나스린(31)이 두달간의 도피 끝에 출국, 스웨덴에 입국했다.

나스린은 국제작가단체인 '펜'의 스웨덴 지부 초청 형식으로 지난 8월 10일 스웨덴에 입국, 사실상 망명생활에 들어갔다.

당국으로부터 회교모독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그녀를 붙잡기만 하면 사형하겠다고 버르는 수만명의 회교 과격분자들을 피해 두달동안 숨어 살았던 나스린은 8월 3일 경찰에 출두,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은 직후 출국해 방콕을 거쳐 스웨덴에 입국했다.

스웨덴 정부는 나스린에게 원하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체류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망명신청도 그녀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말해 나스린이 원하기만 한다면 망명도 허용할 것이 확실하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과격 회교단체들은 베나지르 부토 총리가 범법자를 보호해 해외로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부토 정부를 격렬히 비난했다.

▶ 소비자 정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 내용

경제기획원은 지난 7월6일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복사기·팩시밀리와 같은 사무용기기 등 10개 품종 141개 품목에 대해 구입가환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그 개정내용을 소개한다.

94년 8월부터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구입한후 10일내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면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구입가환불제도가 시행된다.

경제기획원은 지난 7월6일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복사기·팩시밀리와 같은 사무용기기 등 10개 품종 141개 품목에 대해 구입가환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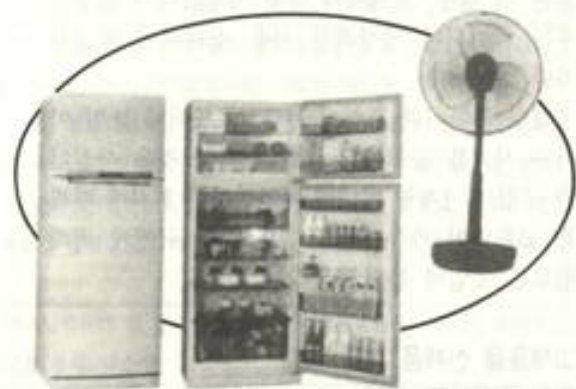
이에따라 중요하자가 있을 때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제품의 범위는 기존 식료품·농수축산물·의약품 등 60개 품종 315개 품목에서 70개 품종 45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새로 환불범위에 추가된 품목은 가전제품(59개)·사무용기기(13개)·전기통신기자재(28개)·시계(3개)·재봉기(1개)·광학제품(5개)·아동용품(12개)·가구(11개)·보일러(5개)·악기(4개) 등이다.

이와함께 자동차 등 10개 품종 46개 품목은 피해보상기준을 강화, 자동차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종전에는 제조업자와 의뢰인에게만 수리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판매자까지로 확대했다.

또 모터사이클은 똑같은 하자가 내번 발생해야 교환 또는 환불해주었으나 이제는 세번째 고장부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제기획원은 이번에 구입가환불제가 추가로 적용되는 품목은 최신기술 또는 전문품목으로 기기의



사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면서도 사용자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처음 사용할 때 제품의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품목도 중고자동차매입이 추가되어 종전 8개 품종 555개 품목에서 89개 품종 556개 품목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경제기획원 발표에 소비자단체에서는 구입가환불기간이 10일은 너무 짧으며 기간을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를 찾아내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대한 결함이란

성능·기능 상의 원칙적 하자 의미

문 중대한 결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소비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업체에선 사소한 결함이라고 우겨 환불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답 중대한 결함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업체간에 시비가 생겨 환불이 쉽지 않으리라는 소비자들의 우려는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원칙적으로 중대한 결함이란 성능 및 기능상에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예를 들어 TV의 색상조정이 안되거나 냉장고의 냉동·냉장 기능이 잘

안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소비자가 잘못 사용하다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되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만 해당된다.

중대한 결함이란 표현의 애매모호함이나 10일 이내라는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발생한 하자에 대해 제품 교환만이 가능하도록 했던 과거 규정에 비해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

중고제품을 신제품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에도 환불

문 성능·기능 상의 중대한 결함 외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가?

답 업자가 중고제품을 신제품 가격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 광고 또는 제품에 표시된 것과 실제 제품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제품 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해 피해를 본 경우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가구의 경우, 기능상 하자가 아닌 상표 도용 등에 따라 소비자가 유사제품을 구입했을 때에도 과거엔 교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식업의 경우에도 예식장이 사용하지도 않은 부대품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요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해 이를 냈을 때엔 그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계약일과 제품 인도일이 다를 경우엔 인도일을 기준

문 환불 가능 기간이 물건 구입 후 10일 이내라고 했는데 계약일과 물건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엔 어떻게 처리되는가?

답 환불 가능 기간이나 품질보증기간은 전부 물품을 구입한 날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계약일과 물건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엔 물건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품질보증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좀더 살펴보면, 판매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조일 또는 수입 통과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에 포함시키며, 제조일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가 주장하는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수리 과정에서 10일이 초과되어도 환불받을 수 있어

문 구입 후 10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수리를 받다 보니 10일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애초에 예상했던 하자 상태보다 심각한 중요 하자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한가?

답 처음에 소비자나 사업자가 중대한 하자임을 모르고 수리를 시작해 수리를 하다보니 10일을 넘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 하자라면 환불이 가능하다.

중요 하자에 따른 10일 이내 환불은 수리과정에 따른 10일의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렸다면 해당되는 것이다.

교환 또는 환불로 명시된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우선시

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보면 환불이라고 못박은 경우 외에 교환 또는 환불이라고 두가지 사항을 표시한 항목이 있는데 이럴 때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업체에선 당연히 환불 대신 교환을 해주려고 할텐데...

답 교환 또는 환불처럼 두가지 이상의 선택 항목이 있을 때엔 소비자의 선택을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업체측에 얘기하고 이를 지키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구입가 환불제 추가적용 대상

품종	해당 품목
• 가전제품	TV, VTR,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라디오, 전축, 전자렌지, 전기보온밥솥 및 밥솥,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청소기, 전기난로, 전기후라이팬, 가습기, 헤드폰, 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오븐, 전기약탕기, 전기남비, 전기토스터, 환풍기, 전기머리인두, 전기믹서, 연탄가스배출기, 전기램프, 주서기, 소형전압조정기, 전기담수기, 형광등기구, 자동판매기,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 도어폰, 전기벌풍, 전기온수기, 전기콘로, 전기조리기, 전기온수기, 온장고, 송풍기, 공기청정기, 누전감지기, 살수기, 냉수기, 제빙기, 방범경보기, 빙수기, 차일벨, 전자오라기, 식육난로, 안테나 등
• 사무용기기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종이, 디스켓) 등
• 전기통신기기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생제어장치, 기타의 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자동구내교환기, 수동구내교환기,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 구내교환기 및 그 부대기기, 교환접속기기류, 데이터다중화장치류(디지털방식의 장치로서 2048Mbps 이하의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 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콰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 통신전용 정보통신단말장치 및 그 부대기기, 정보통신용 신호변환장치류(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 콘넥터),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기타통신기기류 등
• 가구	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등), 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 문갑, 화장대 등
• 보일러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보일러 등
• 시계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등
• 재봉기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 광학제품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 등
• 아동용품	유모차, 유아용삼륜차, 보행기, 작동완구, 풍제완구, 물놀이기구, 물안경, 어린이용그네, 물러스케이프, 조립식완구, 학습교재, 과학교재 등
• 악기	피아노, 오르간, 기타, 바이올린 등

환불 요구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에 신고

문 환불을 업체측에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수리를 받으라고 우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각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전화: 소비자상담실 02-709-3600)에 신고하면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선 먼저 사업자

와 소비자가 피해보상규정에 근거해 합의하도록 권고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를 자율적으로 구제해 주도록 유도하며,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되면 한국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제공: 경제기획원

성희롱 2차 재판 진행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재판으로 주목을 받았던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이 2차 공판전에 들어갔다. 1차 재판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아 원고 우 조교에게 3천만원의 배상금을 주도록 판결받았던 피고인 서울대 신교수가 항소심을 벌여 성희롱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신교수측은 유학 중인 제자를 증인으로 내세워 성희롱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 교수의 제자 진 모씨는 우 조교가 성희롱을 당했던 시기에 우씨를 교육했다고 증언, 신교수로 부터 우씨가 성희롱 당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 또 우조교가 신교수와의 신체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는 1차 재판에서의 진술에 대해서는 실험실 특성상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씨뿐만 아니라 전임 조교였던 안모씨와 조모씨도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우조교측 공동변호인단 최은순 변호사는 반대신문을 통해 진씨가 러시아워를 피하기 위해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했던 점, 실험실 온도가 평균 24도를 유지해야 했던 점, 우씨에 대한 전씨의 교육이 하루에 불과 1~2시간에 불과했던 점 등을 들어 진씨의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신씨측은 1차 재판이 있지도 않은 사건을 전제로 진행된 여론재판이었다고 주장하며 현장검증을 통해 뒤에서 꺼안은 자세에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것이라고 검찰에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교수측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0월 1일 서울대 화학과 실험실에서 사건 현장

검증을하기로 결정했다. 현장검증 이후 10월 11일 재개되는 3차 재판에는 신교수측 증인으로 당시 화학과 학과장 최모교수가, 우씨측 증인으로 <서울대 우조교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한모군이 출두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에 여성전담과 운영

정부는 여성정책에 대한 정부내 각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종합적인 능력의 향상으로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지시로 <여성정책 추진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 이 지침에 따라 각 부처내에 여성정책 관련 전담부서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침은 각 부처내에 여성정책관련 전담부서를 과단위로 지정, 운영하는 동시에 이 부서들이 매년 3월까지 여성정책에 대한 부처별 추진계획과 실행을 정리해 총리산하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간사부서인 정부(제2)장관실은 앞으로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여성관련 통일정책(통일원), 여성관련 국제협약 비준과 이행(외무부), 폭력으로부터의 여성보호(법무부)등과 같은 여성정책에 대한 현황을 종합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성있는 중·장기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20일 정부2실은 경제기획원 국민생활국 복지생활과,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 문화체육부 생활문화국 생활문화과, 법제처 행정관리담당관실 등 40개 부서를 여성정책 전담부서로 지정해 발표했다.

여노자회, 교육시설 유자계획 수정 요구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지난 6월 보사부의 '94

직장 및 민간교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이 실정에 맞지 않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노자회는 8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사부의 '94년 1천5백억원의 융자금과 '97년까지 7천억원 규모의 기금 지원계획은 향후 정부가 민간교육시설 확대와 정상적 운영에 보다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계기라고 평가하나 민간교육시설의 현실을 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보사부의 융자계획은 탁아소의 확대와 올바른 운영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높은 이자율과 과도한 담보능력을 요구하고 있어 민간교육시설들에게 커다란 아쉬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노자회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절대 다수의 교육시설이 높은 임대료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연금 융자방식보다는 임대 탁아소 건립을 제시했다. 보사부가 굳이 연금 융자방식으로 교육시설 확대를 꾀할 경우에는 연금 융자시 이자율을 3% 정도로 낮춰줄 것(현재 9%)과 담보는 보사부가 보증을 해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여노자회의 이와 같은 주장에 뜻을 같이한 구로구 민간교육시설 연합회는 8월 4일부터 융자시 이자율을 3%로 낮추고 보사부가 직접 무담보 대출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통일 회년교회여성협의회 창립

'95년 통일 회년을 앞두고 민족통일운동, 교회개신운동 등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를 비롯 9개 교단과 13개 기관의 교회여성단체가 뜻을 모아 <'95 통일 회년교회여성협의회>를 창립했다. 지난 8월 10일 동대문 감리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협의회는 김

회원(교회여성연합회 회장), 나선정(기독교장로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장), 전병희(감리교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씨 등 세명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세제 개혁안, 여성계 주장 못 담아

재무부가 9월말 정기국회에 올릴 세제개혁안이 배우자간 상속·증여세 공제의 폭을 넓히는 데 그쳐 상속·증여세 폐지를 비롯해 맞벌이 부부의 가정관리, 탁아비용 등에 대한 공제 등 여성계가 주장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는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1억원+1천2백만원×결혼연수 금액을 공제하고 있는 현재법과 8억원 한도내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도록 했다. 증여세는 3천만원+결혼연수×3백만원이던 것을 5천만원+결혼연수×5백만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했다. 개혁안에는 부녀자세대주공제와 맞벌이부부 특별공제를 <부녀자 특별공제>로 통합했다. 부녀자세대주공제는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세대주가 된 부녀자세대주와 맞벌이 부부의 아내에게 각각 54만원을 공제해주었으나 개혁안에서는 부녀자세대주의 경우 반드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가족중 장애자, 노인, 10세미만 어린이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 소득세 공제 수혜폭이 줄어든 셈이다.

시민의 모임, 분유 혈값 병원공급 막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순희장은 지난 8월 2일 제3차 세계모유수유 주간 기념 세

미나에 앞서 남양유업, 매일유업, 파스퇴르분유 등 3개사가 앞으로는 협값에 분유를 병원에 공급하는 것을 중지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임을 주선했다. 이날 모임이 시작되기 전 분유제조업체들은 조제분유, 고무 젖꼭지, 젖병 등 모유대체식품을 무료 또는 싼값으로 병원에 공급하는 것을 중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합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상목 보사부장관을 비롯 남양유업 홍원식 사장, 박희주 매일유업사장, 조재수 파스퇴르 분유 사장등이 참여했다.

세계여성회의 준비 심포지엄

정무장관(제2)실은 지난 8월 17일 오후 2시 30분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내년 9월 5일부터 17일간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여성회의 준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간 정부 및 민간의 준비활동을 설명하고 참가를 안내하는 경과보고에 이어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안)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이날 준비 심포지엄은 정무2실이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하게 될 행동강령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자 전문가들의 대응전략을 공동으로 토의한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에 이어 유엔 여성총회라 할 수 있는 여성지위위원회에 금년부터 임기 4년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내년 4차 여성회의를 계기로 여성분야 국제협력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할 계획에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노미혜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서대원 외무부 국제연합심의회관 등이 참석했다.

21세기위원회에 여성위원 7명 임명

대통령 직속 정책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에 지난 8월 12일 여성위원 7명이 추가로 임명돼 전체위원 46명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15%로 높아졌다. 그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대통령에게 정책자문을 하고 있는 21세기위원회는 이번에 35명의 위원이 추가로 가담되는 제2기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여성위원수가 대폭 확대된 것.

신임 여성위원은 김영신(연합통신 부장), 김재명(시티뱅크 압구정지점장), 김태현(성신여대 교수, 교육학), 백영옥(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손덕수(효성여대 교수, 여성학), 오세화(대덕연구단지 화학연구소 염료실장), 조은(동국대 교수, 사회학)씨 등이다.

이윤자, 김윤덕 전 국회의원 민자당 당무위원에 임명

전직 국회의원의 이윤자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회장과 김윤덕(전 한국여성개발원 원장)씨가 최근 민자당 당무위원으로 임명됐다. 민자당이 임명한 당무위원은 총 44명으로 여성은 이·김 전직 의원 둘 뿐이다. 이는 지난번 전체위원 54명 중 여성 당무위원이 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다.

광주, 여성생활문화회관 건립

광주시에 대규모 여성문화회관이 건립된다. 광주시 의회 안성례 부의장을 비롯 장영숙, 이윤희 시의원과 광주지역 여성계가 추진해 온 여성문화

회관 건립은 지난 8월 9일 강영기 광주시장으로 부터 '상무 신도시에 건립 2천평 규모의 여성생활문화회관(가칭)을 건립키로 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가시화됐다.

광주시에 발표한 여성생활문화회관은 금년 중 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된 부지를 확보하고 97년 경에 착공할 계획이다. 2천평 건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의 여성생활문화회관이 완공되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한편 사회봉사기회의 확대와 저소득층 여성의 재활능력을 지원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여성노동정책과 출산율 밀접한 관계

일본의 '싱크탱크' 종합연구개발기구'는 최근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분석한 <일하는 여성의 지원에 관한 국제비교>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여성노동정책이나 국민들의 남녀평등의식 수준이 출산율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통적으로 모성애를 중시하면서 2차대전 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진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각각 다른 사회적 원인으로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탈리아는 남녀평등의식은 높지만 실업률이 높아 한번 취직이 된 여성들의 이직율이 낮고 이로 인해 아기를 한명 이상 낳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많아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독일 중 서독지역 여성의 경우는 보육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은 파트타임에 종사하게 되고 아기를 낳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육아를 위한 휴업제도 도입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은데다 대부분 남편들이 직장에서 장시간 근로 등으로 가사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아기 갖기를 꺼려 한다는 것.

여성 강력반장 탄생

지난 7월 30일 서울 청량리경찰서 강력2반장에 박송희(25) 경위가 임명돼 화제를 모았다. 조직폭력, 마약, 살인 등의 사건을 전담해야 하는 강력반장에 여성이 임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경위는 올 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방범과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스페인어과에 다니고 있는 학구파 경찰, 합기도와 검도가 각각 1단인 박경위가 맡은 강력2반은 남자 형사 7명과 여경 1명으로 구성됐다.

국회사무처 첫 여성국장 임명과 여성사무보조원제도 폐지

국회사무처가 국회사상 처음으로 5명의 여성경위를 선발하고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차별정년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사무보조원제를 행정보조요원과 기능직 사무원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국회도서관의 신용자 분석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임명함으로써 국회에 첫 국장급 여성이 탄생하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그동안 국회사무처내의 차별정년 시정을 위해 작년 9월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공무원직에서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관한 연구결과를 입법·행정·사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사무처 인사규칙 가운데 여성관련 부분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이 대부분인 사무보조원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별정직 행정보조원 ㉡기능직 사무원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종전에 사무보조원이 신규채용연령 18~20세, 근무상한연령 24세이던 것을 ㉠별정직으로 하여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사무원으로 하여 기능직공무원 정년인 58세가 적용되게 한 것이다.

또한 여성이 대부분인 교환직과 타자직은 다른 기능과 달리 43세가 정년이었으나(타기능직은 58세 정년) 타자원은 사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교환직·사무원직 모두 기능직 일반과 같은 58세 정년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고용직의 안내원(신규채용연령 18~25, 근무상한연령 24세)을 기능직으로 바꾸어 정년을 58세로 조정하였다.

참고로 국회사무처의 공무원은 일반직·별정직·기능직·고용직으로 크게 나뉘는데, 그동안 신규채용연령 및 근무상한연령(정년)이 문제되었던 것은 기능직 가운데 교환원과 타자원(각 43세), 고용직 가운데 후생보조원·안내원·사무보조원이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대구서 열려

대구·경북 지방자치연구소, 경산지역발전연구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대구위원회, 대구여성회는 공동으로 지난 9월8일 오후3시 대구시 중구청 강당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금희 (여성신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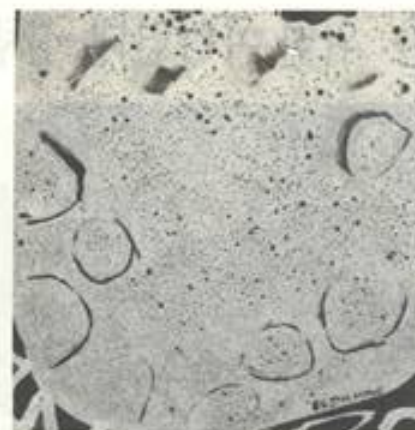
본회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형우 (내무부 장관)
금일봉
이용옥 (국제존타서울클럽 이사)
24만원
나미례 (본회 출판공보위원)
홍보
한말숙 (대한여학사협회 회장)
전국여성대회 프로그램
위원회 오찬 제공
이필원 (본회 근로여성위원)
근로여성위원회 오찬 제공

검소한 추석 보내기

- 민속명절을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검소하게 보냅니다.
- 검소한 차례상 차리기
 - 차례상은 가정형편에 맞게 준비
 - 제수용품은 우리 농토, 우리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준비
- 추석 성묘는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한다.
- 선물 안주고 안 받기

표지의 말



脫我(off self)
홍정희 작

홍정희씨는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1979년 미국 미시간 미술대학에서 교환교수로 1년간 연구했다. 71년 제20회 국전 문화공보부장관상, 78년 제1회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76년 3회 한국미술대전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73년 첫 개인전 이래 13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상파울로 비엔날레 등 국제전과 신인미술전, 창작미술협회전, 양가주망전, 60년대 한국현대미술 영포르멜 그 주변전, 오늘의 작가전, 서울현대미술제, 현대미술초대전, 현대한국회화전, 한국미술 오늘의 상황전, '94 화랑미술제등 각종 기획전과 그룹전에 수차 초대 출품했다.

"나의 작품은 내가 살아서 숨쉬는 공간이다. 나는 어떤 사랑을 띤 인간이라는 광적인 자신을 느끼는 자유인이다.

예술은 모든 것의 모음이며 생명이다. 예술은 인간을 진실하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나의 작품은 나의 현실과 이상을 빛나는 생명으로 창작하는 것이다."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창립총회 개최



본회 및 여성계가 추진해온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창립총회가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본회를 비롯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개발연구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등 56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이연숙 본회회장과 이미경 여연상임대표를 여성연대의 공동대표로 인준하고 발족 취지문과 사업계획, 규약 등을 채택했다.

이날 여성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우선적으로 1995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20% 여성의석 확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정당에게 의원후보자 공천과 당고위직에 20% 여성할당제를, 국회에게는 각 상임위원회와 당직에 20% 여성할당제를, 정부에게는 각 지방자치부단체장 임명과 정책고위직의 20%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것" 등을 결의했다.

여성연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정당의 여성국 인사와 학자, 단체장을 위주로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전략회의'를 하고 할당제 도입에 대한 국민홍보사업과 여성유권자 교육 사업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연숙회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정의원과 간사

주양자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본회의 동성동본 금혼규정 폐지 청원, 계속 심사중

본회는 지난 5월 민법 제801조 제1항(동성혼동의 금지) 폐지에 관한 청원 조속처리에 관한 진정서를 낸 바 있는데, 국회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8월 11일 진정서처리결과를 알려왔다.

그 내용은 "동성동본금혼 규정의 존재문제는 사회 계층간의 의견대립이 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 국민의 법감정, 헌법의 정신과 동성동본혼인의 실태, 사회에 미치는 영향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므로 귀회의회에서 제출한 청원은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동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계속 심사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시민교육

본회는 지난 9월 6일 2층 회의실에서 소비자 모니터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소



비자 정보'로서 최주필 한국자동차보험 소비자보호부 과장이 맡아했다.

군복무 가산제에 대한 의견 개진

공무원 채용시험시 재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 개선이 여성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7일 행정쇄신 실무위원회 1차 회의에 이어 9월 7일에 있는 2차 회의에서 이연숙회장은 여성계의 입장을 대표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여성계의 입장은 가산점제도 폐지 또는 대폭 축소이며,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과 군경력 호봉산정은 이중혜택이라는 주장이다.

이연숙회장, 방송대상 심사위원으로

이연숙회장은 지난 8월 첫째주 방송대상 후보자들을 심사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심사활동을 했다.

이광택위원, 국민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돼

본회 근로여성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이광택 법학박사는 오는 2학기부터 국민대 법학과 교수로 새로이 임용됐다.

홍정희위원, '94 화랑미술제에 초대출품

본회 출판공보위원이며 '여성' 표지 그림을 제공하고 있는 홍정희위원은 지난 8월18일부터 28일까지 열린 '94화랑미술제에 현대갤러리 추천작가로 선정돼 출품했다.

동정란

이연숙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이연숙 본회회장은 지난 9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 선임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임기는 3년이다.

한국통일여성협의회

목포지부 발대식 및 낙도 무료봉사

목포지부 발대식을 94년 7월2일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고기효 회장, 최영해 부회장, 김방자 이사를 비롯 김순희 목포시 지부장 및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고기효 회장은 이 목포지부 결성을 계기로 통일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 지부는 94년 8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신안군 홍도에서 의료진 10여명과 함께 주민에게 무료 진료 및 의약품 무료 배부를 실시했다.

한국통일여성협의회목포지부발대식



가톨릭여성연합회

가톨릭여성신앙대학 가을학기 개강

가톨릭여성신앙대학은 91년 4월에 개강되어 2년 과정으로 3기생이 졸업을 하였고 현재 제4기, 제5기생이 수강중에 있다. 9월 5일부터 11월까지 매주

월요일 10시 30분 명동 교육관 205호에서 개강되는 가을학기에서는 신약, 여성신학, 전례, 선교와 신학사상, 한국교회사, 가정의 의미와 새로운 가정문화에 대한 강의가 있다.

한국퇴역여군회

창립2주년 기념총회

한국퇴역여군회 회원들은 지난 7월 22일 상오 11시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창립2주년 기념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대통령 부인 손명순여사의 축전과 권영자 정무제2장관을 비롯하여 각계 여성인사들과 회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권영자 정무제2장관의 격려사와 이연숙 여성단체협의회장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장기홍 귀순용사의 북한실상 강연을 통하여 다시금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행사였다.

한편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의 지혜" 7개항 내용이 담긴 부채 1000개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였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절제옹변대회 및 장학금 지급

지난 7월 2일 절제회 2층 강당에서 개최된 절제옹변대회는 '술·담배·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삶'(MY LIFE WITHOUT DRUGS)이란 주제하에 청소년부와 대학부로 나뉘어 한글, 영문으로 발표되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마약의 해독을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교육자선교회 기독교학생반 지도교사협회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대학부 1등 수상자에게는 95년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는 세계절제대회에 초청되어 발표하는 특전이 주어졌다.

또한 27명의 절제회 장학생에게 5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해외지회에 절제 계몽을 위한 자료 송부

호주 및 네덜란드에 절제 계몽을 위하여 금연 비디오테이프, 절제 70년사, 팸플렛 등의 자료를 송부하였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로서 최초의 보건소장 탄생 축하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로서는 물론 전국의 보건직 여성공무원으로서 최초로 보건소장이 된 전북 진안군

보건소 정옥순소장을 위한 축하회를 8월 17일 오후 6시 30분 위커했호텔 코스모스룸에서 가졌다. 전국의 지부장 및 산하단체장, 간협이사,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축하만찬에서 최영희 대한간호협회장은 "공직생활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딛고 대기만성으로 오늘의 영광을 차지하여 후진들에게 귀감이 되어 준 정옥순 보건소장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히면서 최초의 간호사 보건소장으로서의 본보기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선 대의원의장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보건소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정옥순소장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으며 홍정혜 간호사업 자문위원도 보건소장이 되기까지의 정옥순소장의 노력을 격려하면서 주위에서 적극 돕겠다고 하였다. 답사에 나선 정옥순소장은 "각계에서 보내준 격려와 축하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축하만찬석상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정옥순소장에게 선물과 꽃다발을 증정했고 참석자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한국우먼스클럽

국제청소년회원에게 장학금 전달

미국에서 7월24일부터 8월6일까지 개최된 국제청소년대회에 본클럽청소년대표가 참석해 국제청소년들과 함께 역사와 문화의 교류 및 국제화시대에 즈음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청소년회원들이 수차례 받은바 있는 장학금을 금년부터 본클럽에서는 대회에 참가한 외국청소년대표들중 성실하고 한국에 관심이 많은 우호적인 학생을 선정, 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제8회 부녀복지시설 청소년 수련회

한국부녀복지연합회는 부녀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상호협동정신을 고취시키고, 단체생활을 통한 긍정적인 사고와 경험을 통한 적극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키 위해 매년 청소년수련회를 개최해온바 올해로 제8회 부녀복지시설 청소년수련회를 개최하여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대전 유성 로얄관광호텔에서 부녀복지시설 청소년 및 지도교사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우정의 캠프를 주제로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아름다운 추억과 많은 경험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보건사회부 김명숙 가정복지심의관의 특강은 미래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다시금 다지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촛불의식에서는 국가의 소중함과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라온 지난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국제존타한국연합회

이사회 개최

한국연합회는 지난 9월 3일 부산 해운대 관가정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제52차 국제존타대회 보고, 제26지구 활동보고 및 한국지역연합회의 1년 계획등을 토의했다.

한국여성항공협회

세계여류비행사 기념박물관에 김경오회장 업적 전시

여류비행사기념박물관이 미국 캔사스주 애치슨시티에서 지난 6월 오픈식을 갖고 세계적인 여류비행사 선구자들의 사진과 업적을 기록 전시하는 가운데 한국 최초의 여류비행사로 김경오회장을 선정, 박물관내 태극기가 제양되고 그 아래 기념패가 놓여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광 연수

한국여성항공협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 고향에서 이사연수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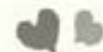
'21세기를 향한 항공인의 자세'라는 주제아래 김경오회장의 강연이 있었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이 사들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했다.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한해성금 전달

본클럽은 7월 28일 지난 여름 극심했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한해성금을 모금하여 총 일백사십칠 만칠천원을 전달했다.



후원자를 모십니다

본회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본회의 목표와 활동에 찬성하시는 분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여러분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0원 이상 보내주시는 분께는 1년분 '여성'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동참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 한강로지점
067-01-001600

후원금을 보내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794-4560, 796-4560



편집 후기

할당제 추진을 위해 여성계가 한자리에 모인 여성연대 창립총회에서 많은 분들은 무척이나 감격스러워 했다. "56개 여성단체들이 20% 할당을 목표로 하나로 뭉쳐 공동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벌써 반은 이룬 것 같은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우리 여성들은 여야가 따로없다. 서로서로 도와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이룰 뿐이다"라고.

단결과 화합으로 빠른 시일내에 소망이 성취되리라 믿는다.

월간여성 · 1994년 9월호 통권322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이연숙

편집인: 김금례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사식·편집: 한라기획

발행일자: 1994년 9월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796-4995

•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서은경

위원: 김효자/나미례/문현경/박금옥/배동순/신동식/이경자/홍정희

담당: 권수현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	에	회	장	김	경	오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2-307	584-1426
회			장	이	연	숙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801-1504	649-5353
부		회	장	박	영	혜	서초구 반포4동 81-5	599-1942
부		회	장	정	연	심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8-909	783-2924
서	기	이	장	이	옥	기	대구시 북구 노원2가 313-12	053-944-1300
서	기	이	사	최	희	순	중구 을지로3가 지하상가 3구역 근화사 약국(11호)	272-4986
회	계	이	사	강	인	자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1012-401	503-4691
회	계	이	사	이	요	식	도봉구 수유5동 510-20	356-0071
감			사	양	은	숙	강남구 대치4동 910-6 현대빌라 101호	561-2630
감			사	김	옥	환	인천시 북구 산곡동 370-71 협성원	032-503-3493
조	직	관	리	위	원	애	종로구 관철동 260 세븐미용실	732-9585
기	회	연	구	위	원	숙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한신아파트 124-701	0342-702-3078
재	정	위	원	장	한	숙	서대문구 북이현동 1-316	362-3687
출	판	공	보	위	원	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216-1002	0342-701-1436
국	제	관	계	위	원	경	강남구 도곡동 6-17	569-0110
사	무	총	장	김	영	희	서대문구 대현동 11-1	648-2002
					금	래	노원구 중계본동 4블럭 신동아아파트 115동 603호	934-7866

회 원 단 체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	한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구 쌍림동 88-7	279-3618
대	한	기	독	교	여	여	귀	옥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대	한	여	학	사	협	한	말	숙	도봉구 방문동 423-44	993-2378
대	한	조	산	협	회	이	옥	기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	성	문	제	연	구	회	윤	숙	용산구 한남동 738-20 화성빌딩 302호	797-9185
중	앙	부	인	회	김	취	취	복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가	톨	릭	여	성	연	합	정	순	중구 명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	문	직	여	성	클	럽	한	혜	강남구 입구정동 408 미성유치원 208호	516-9608
한	국	부	녀	복	지	연	합	단	마포구 공덕동 427	712-0713
한	국	여	성	향	공	협	회	김	오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1007호
대	한	미	용	사	회	중	앙	순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	국	우	먼	스	클	럽	김	인	숙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한	국	여	성	문	화	생	활	회	서대문구 홍은동 265-90	394-2112
국	제	존	타	한	국	연	합	회	박	순
한	국	여	성	크	리	스	찬	클	숙	자
대	한	약	사	회	여	약	사	회	곽	순
우	리	못	협	회	이	예	준	자	연	련
한	국	식	생	활	개	발	연	구	회	왕
국	제	여	성	총	연	맹	한	국	본	회
대	한	영	양	사	회	서	은	경	영	등
국	제	여	성	승	공	연	합	문	상	회
통	일	여	성	안	보	회	김	순	자	용
대	한	치	과	위	생	사	협	회	김	향
한	국	통	일	여	성	협	의	회	고	기
한	국	퇴	역	여	군	회	정	영	숙	효
고	향	을	생	각	하	는	주	부	들	의
한	국	자	수	문	화	협	의	회	남	상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협	회	최	영	회	중	구	쌍
민	간	호</								